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9호 1962년

평양 근로자사 발행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9호 (202)
1962년 6월(하)

차 례

권 두 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근본적인 전변을 일으키는 위대한 군중적 혁신 운동이다.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은 혁명 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의 조직화된 형태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창조하였다.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인간, 공산주의적 인간들이 끊임 없이 육성되고 있으며 대중적 경제 운영의 새로운 싹들이 자라나고 있으며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이 이룩되고 있다.

우리의 로동 계급이 창조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오늘 공업, 농업을 비롯하여 교육 문화 보건 등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전 인민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였다.

지금 이 운동에는 200만 이상의 근로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벌써 23만 여 명이 망라된 8,980개의 작업반과 직장이 천리마의 칭호를 받았고 2,265명이 망라된 86개의 작업반이 2중 천리마의 높은 영예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경험은 이 위대한 운동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아갈 때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급속히 공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력사적인 과업을 성과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정확히 발전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전진 운동의 성과 여부를 규정하는 기본 문제의 하나로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을 긴절하게 제기하고 있다.

＊ ＊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정확히 지도하며 이 운동을 적극 키워 나가기 위하여서는 이 운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로동당의 령도 밑에 조국 땅 우에 인민의 행복한 락원을 더 빨리 건설하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애국심을 반영하는 것이며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당의 기치 밑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나아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시위하는 것이다》 (김 일성, 《천리마 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전은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다.

력사적으로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넘겨 받았으며 더구나 조국의 절반 땅이 미제의 강점 하에 놓여 있는 우리 나라의 혁명 정세는 우리가 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당은 항상 우리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 열'쇠를 대중의 힘과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데서 찾았으며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대담하게 난국을 타개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켜 왔다.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육성되였으며, 당의 현명한 령도를 체험하고 당을 무한히 신뢰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은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심장으로 접수하였으며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천리마의 속도로 달려 나갔다.

《당의 현명한 령도, 당과 인민의 확고 부동한 통일, 빨리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 열의—이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 운동의 근저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되고 있다》 (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당의 군중 로선을 접수한 우리 근로자들에 의하여 창조된, 대중 속에서 일어 난 대중 자신의 자각적 운동이다. 이 운동의 위대한 힘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고도로 발양시키는 대중적 운동이라는 데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기본 특징은 이 운동이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 제 1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연을 개조하는 로동 과정과 인간의 의식을 개변시키는 교양 과정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있는 것이다.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모든 사업을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생산 장성의 결정적 고리를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 의식을 높이는 데서 찾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사회를 개조하며 사회의 모든 물질 문화적 부를 창조함에 있어서 그의 성과 여부는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자각적으로 동원되는가에 달려 있으며 생산력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사람들의 사상 의식이라고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천리마 작업반들에서의 공산주의 교양 사업은 주로 혁명 전통 교양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항일 빨찌산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과 공산주의적 품성을 열심히 배우고 있으며 그들처럼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살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혁명적 실천, 실지 생활 과정과 밀접히 결부시키고 있다.

이 집단들에서는 전체 성원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있으며 실천에서의 산 모범을 통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모두가 다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의 기본 사업 방법은 청산리 방법이다.

《천리마 작업반에서는 관료주의도, 형식주의도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개조하고 동지적 우애와 공산주의적 호상 방조로써 모든 일을 훌륭히 하고 있다》 (김 일성, 《천리마 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그들은 청산리 방법 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공정》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대중의 집체적 지혜에 의거

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원만히 풀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천리마 기수들은 집단의 교양과 집단의 방조로 뒤떨어진 사람들을 선진 분자로, 적극 분자로 교양 개조하고 있으며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술을,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식을 가르쳐 주며 모두다 경제 관리에 참가하여 주인답게 일함으로써 생산과 기술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종전의 증산 경쟁 운동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민 경제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근로자들의 대중적 경제 관리의 훌륭한 방법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의 방법으로 되였다》(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서 이룩된 로력 조직의 공산주의적 형태의 새로운 싹으로서, 정신 및 도덕 생활에서의 공산주의의 싹의 모범으로서 우리 당은 그것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전력을 다하여 지원하며 키우고 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하여 한 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공산주의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

이 운동은 오늘의 우리 생활에서의 위대한 대중적 혁신 운동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준비하며 그의 실현을 앞당기는 력사적인 운동이다.

사람들을 교양 개조함으로써 생산과 기술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운동, 대중 자신이 당의 호소를 접수하고 일으킨 그들 자신의 자각적인 운동, 이러한 운동을 우로부터의 행정적 조치나 깜빠니야적 방법으로써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꾸준한 사상 교양과 기술 문화 수준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운동이니만큼 이에 대한 지도는 오직 인내성 있고 계통적인 것으로 되여야 한다.

* *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이 운동에서 일부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 잡으며 이 운동을 외곡하거나 비속화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한 일부 일'군들은 이 운동의 지도에서 이러저러한 편향과 결함을 산생시키고 있다.

그것은 우선 일부 일'군들이 이 운동을 단순한 사회주의 경쟁 운동으로서만 취급하려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군들은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며 그들의 창조적 열의를 높이는 데 대하여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

증산 경쟁 일면에만 치중하고 그 집단을 공산주의적으로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는 작업반들에서는 생산에서의 성과가 결코 지속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생활을 통하여 확증되고 있다.

이러한 결함은 바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똑똑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초래되는 것이다.

우리는 응당 이 운동에 대한 지도의 중심을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을 높이며 그를 통하여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는 데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본질을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더욱 철저히 인식시키는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부 당 조직들은 이 사업을 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이것을 리론적으로 개괄하며 해석한 서적들도 매우 적다.

이 운동에 대하여 쓴 얼마 되지 않는 서적들 중에도 이 운동의 본질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서술한 것들이 있다.

례하면 단행본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그러하다.

필자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지 못한 데로부터 이 운동의 경제적 의의를 서술하는 데 치중하고 이 운동에서 주되는 내용이며 1차적 의의를 가지는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매우 불충분하게 해명함으로써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할 수 없게 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일부 존재하는 다른 하나의 편향은 사업과 생활에서 일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데만 급급하며 이 운동을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끌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편향은 일부 직장과 작업반들에서 천리마 칭호를 쟁취할 때까지 성과를 올리다가 칭호를 쟁취한 다음에는 열의가 식어지는 데서, 혹은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의 꾸준한 혁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떠한 특출한 일이나 하나 하려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서, 또는 대중의 사상 개조를 꾸준히 전개하여 그들의 자각성을 높일 대신에 지시와 각가지의 규률, 잡다한 운동으로 대중의 생활과 행동을 틀에 맞추어 넣는 식으로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대치하는 등에서 표현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결코 이렇게 진행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인내성 있게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집단의 힘, 집체적 지혜에 의거하여 창의 고안과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며 로동 생산 능률과 설비 리용률을 백방으로 제고하며 원자재를 절약하고 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 동원하는 사업을 항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의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 육성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는 위대한 전진 운동을 더한층 촉진할 수 있다.

끝으로 중요한 결함은 일부 지방 당 조직들과 사회 단체들이 이 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손을 떼고 있으며 그것을 자연 발생성에 방임하고 있는 것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대중 자신이 발기하고 그들 자신이 창조한 대중의 자각적인 운동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 운동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온갖 대중의 발기, 대중의 운동은 그에 대한 옳은 지도가 보장될 때에만 정확히 발전할 수 있으며 자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맑스-레닌주의는 가르치고 있다.

당 조직들과 사회 단체들, 모든 지도

일'군들은 이 운동을 정확히 이끌어 나가며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를 적극 지지하고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그것이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계속되는 지도를 주어야 한다.

* *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지도 일'군들이 이 운동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운동의 본질적 요구에 부합되게 언제나 공산주의 교양을 제 1차적 과업으로 제기하며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깜빠니야식으로, 행정적 방법으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운동으로서 꾸준히 전개하여 나가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 조직들과 사회 단체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할 것을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부 당 조직들과 사회 단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운동에 대한 무관심성, 형식적인 지도 등은 결정적으로 근절되여야 한다. 모든 당 조직들과 사회 단체들은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자기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고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에 있어서 천리마 작업반 내 당 조직들을 강화하며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제고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조직들은 우선 당원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에서 당원들이 모범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 운동에서 달성된 성과들을 계속 공고히 하며 그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천리마 작업반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보다 훌륭히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람과 자연과 사회를 놀라운 속도로 변모시키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 운동이다.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우리 당 과학 정책의 빛나는 승리

김 기 남

오늘 나라의 전면적 기술 개건과 문화 혁명의 실현을 위하여 과학과 기술이 노는 역할은 비상히 제고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 4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인민 경제의 전면적 기술 개건은 모든 과학 부문들의 획기적인 발전을 요구한다. 생산력 발전에서의 과학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며 과학의 요새를 점령함으로써만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달성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회적 개조가 끝난 오늘의 조건 하에서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혁명적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바로 전체 근로자들이 과학과 기술로 튼튼히 무장할 때가 되였다.

해방 후 우리의 과학과 기술은 당의 올바른 령도 하에 거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우선 과학자, 기술자 대렬이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과학 사업을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인구 1,000명당 16명에 해당하는 16만 1,000 여명의 과학 기술 인테리들이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사업하고 있다.

학위 학직 소유자의 대렬도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학위 학직 소유자는 1954년에 비하여 1961년 말에는 330%로 장성하였다.

당은 자체의 과학 기술 인테리 부대를 꾸림과 동시에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에도 커다란 주목을 돌려 왔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는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을 비롯하여 83개의 과학 연구 기관들이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은 과학 연구 기관을 부단히 확대 발전시키면서 그의 연구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특히 깊은 배려를 돌려 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단 하나의 전문적 과학 연구 기관도 가지고 있지 못하던 과거 처지로부터 벗어 나 자체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당의 정확한 과학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 과학 기술 발전에서는 거대한 전진이 있었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당의 과학 정책을 받들고 나라의 자립 경제를 공고히 하는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화학자들은 우리 나라에 자연 가스, 원유 및 콕스탄이 생산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로서 화학 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영예롭게 실천하였다.

그리하여 석회석, 무연탄, 전력 등 자체의 원료 원천에 확고히 의거한 유기 화학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합성 섬유, 합성 수지들이 대량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특히 비날론 연구 사업에서의 성과와 세계 1등급의 대비날론 공장의 건설은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우리 당 과학 정책의 빛나는 승리로 되며 우리 나라 과학 기술이 달성한 중요한 성과로 된다.

최근 시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집단은 무연탄 가스화의 연구에서 그 실

험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화학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게 하였다. 무연탄 가스의 생산은 모직물을 대신할 수 있는 니트론의 원료, 합성 세척제, 뇨소 수지 및 단백질 사료인 뇨소 사료 등 다양한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며 연료 및 전기 절약에서 커다란 전망을 열어 놓았다.

나라의 자립적 야금 공업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국내의 원료, 연료 원천에 튼튼히 립각하는 자립적 야금 공업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산 연료에 기초하여 흑색 야금 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해 말씀하였다.

이 교시를 받들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철곡스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단시일 내에 환원 단광법, 립철 회전로에 의한 련속 제강법 등을 공업화할 수 있는 토대를 닦고 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 경제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며 기술 혁명을 더욱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인민 경제에서 요구되는 대형 발전기와 변압기를 비롯하여 대형 타닝반, 고압 프레스, 대형 호뻥 등 중형 기계들과 자동차, 뜨락또르, 전기 기관차, 기선 등을 만들고 있다. 기계 설비의 자급률은 해방 전 10% 내외로부터 1960년에는 90.6%로 제고되였다.

오늘 우리의 농촌 경리도 과학과 기술의 최신 성과에 의거하여 더욱 급속한 속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살초제를 비롯하여 살충제와 성장 자극제 연구에서 훌륭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현 시기 농촌 기술 혁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농촌 경리의 화학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학의 도움에 의하여 병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며 농업에서 가장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이앙, 제초, 수확 등의 작업을 과학의 힘을 빌어 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자들은 알곡 생산을 증대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다수확 새 품종을 육성하는 데서도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여러 가지 병에 강하고 쉽게 도복되지 않으며 종전의 품종에 비하여 정보당 1톤 이상의 수확을 더 낼 수 있는 벼의 신품종 룡성 1호의 육성은 알곡 생산을 증대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최근 우리 나라 의학자들은 생체 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조직학적 계통으로서의 경락의 물질적 실태를 밝혀 내였다.

경락의 실태 발견은 현대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이룩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며 오랜 력사를 가진 동의학의 유산을 깊이 연구 섭취할 데 대한 우리 당 과학 정책이 가져온 중요한 결실의 하나로 된다.

또한 우리의 의학자들은 홍역의 능동 면역에 성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을 홍역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였으며 비루스 공생균을 발견함으로써 현대 면역학을 더욱더 풍부히 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 선진 과학 기술을 섭취하며 그것을 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게 도입함으로써 우리 나라 과학을 최단 기간 내에 세계의 선진 수준에 끌어 올릴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실천하는 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최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만능 전자 계산기와 만능 교류 계산대를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다. 전자 계산기와 만능 교류 계산대의 리용은 인민 경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전자 계산기의 리용은 생산 공정의 종합적 자동화와 생산의 합리적인 관리에 큰 기여를 하게 되며 사람의 힘으로는 계산할 수 없거나 혹은 계산한다고 하여도 막대한 시간이 걸려야 할 복잡

한 문제를 신속 정확히 계산해 냄으로써 인민 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례하면 전자 계산기는 2명의 계산수가 탁상 계산기를 리용하여 1년 간 계산하여야 할 량을 단 5분 간에 정확히 계산해 낸다.

우리 나라 과학자들은 게르마늄 반도체 물질을 제조하여 그로부터 소자를 제작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이 반도체 소자는 각종 측정 수단, 자동화 기구, 정류 설비 및 체신 설비를 현대화하는 데 광범히 리용된다.

자연 과학 및 기술 과학 분야에서 달성된 이 모든 성과들이 인민 경제에 전면적으로 도입될 때 그것은 커다란 물질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회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을 리론적으로 개괄하여 우리 당 정책을 해설 선전하고 민족 문화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력사학자들은 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에 립각하여 우리 인민의 유구하고 찬란한 력사를 체계화하는 사업에서 적지 않은 일을 하였다. 특히 과거 일제 반동 어용학자들이 조선 인민의 《후진성》을 《증명》하기 위해 조작해 낸 모든 반동적 《리론》들을 폭로 분쇄하였으며 력사학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우리 나라 원시 사회와 고대 국가에 관한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들은 우리 인민이 일찍부터 높은 문화를 가진 인민으로서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밟아 왔으며 린변 종족들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조선 중세사 분야에서도 봉건 시기 농민들의 계급 구성, 봉건 시기 토지 소유 제도, 농민 폭동 등을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 근세사 분야에서는 《조선 근대 혁명 운동사》를 비롯한 일련의 연구 성과들이 출판되였으며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진행된 조선 인민의 줄기찬 투쟁에 대한 연구 사업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외적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애국 투쟁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이루는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한 사료 정리와 연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민족 고전을 수집 정리하며 출판하는 사업에서도 일정한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삼국 사기》, 《삼국 유사》, 《반계 수록》, 《담헌서》 등을 비롯한 고전 70여 종이 번역 복각 출판되였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현실은 우리 경제학자들 앞에 계속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학자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개괄한 《사회주의 기초 축성을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의 남조선 경제의 파탄상과 그 복구 방도를 집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우리 철학자들의 손에 의하여 《조선 철학사》(상)가 집필 출판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철학 사상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사업에서 일정한 기초가 닦아졌다.

17만 개의 어휘를 수록한 과학적인 주석 사전 《조선말 사전》 편찬 사업은 조선 인민의 언어 생활을 규범화하며 그의 문화성을 높임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 과학자들 호상간에 집체적 연구의 기풍이 점차 확립되여 가고 있다.

최근 출판된 종합 론문집 《조선 혁명 수행에서 김 일성 동지에 의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은 바로 이러한 집체작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 업적은 널리 외국에도 소개되고 있으며 형제

국가들과의 과학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우리 나라 과학 기술이 차지하는 국제적 위신도 점차 제고되고 있다.

비날론 연구 성과와 금속 공업에서의 립철 회전로에 의한 제철 방법 등을 비롯한 많은 과학 기술적 업적들이 외국에 소개되고 있으며 경락 실태에 관한 발견 등은 외국 학계에서 일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 과학 부문에서도 우리 학자들의 연구 업적이 국제적인 회합과 접촉을 통하여 비단 형제 국가들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인사들 측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과학 기술 발전에서의 모든 성과들은 무엇보다도 해방 후 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배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교시와 지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해방 후 김 일성 동지는 일관하여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과학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선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자연 부원과 원료 원천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이러한 길로 나아감으로써만 우리는 인민 경제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할 수 있으며 과학 사업을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 전적으로 복무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섬유 문제 같은 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나라 제철 공업에서 어떻게 하면 콕스를 적게 쓰거나 안 쓰고 제철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우리 나라에 연유 기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대용 연유를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 등 기타 여러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선집, 제 5권, 382페지).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한 부문에서는 례외 없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당 과학 정책에서 중요한 방향은 리론과 실천, 과학과 생산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리론과 실천과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함이 없이는 그리고 과학 일'군들과 생산 일'군들의 창조적 협동이 없이는 과학 기술의 진보는 불가능하다》(선집, 1953년도 판, 제 4권, 172~173페지)라고 말씀하였다. 오늘 우리의 과학은 더욱 실천 속으로, 생산 현장으로 침투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필연적인 추향이기도 하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당에 의하여 취해진 현지 연구 기지 창설에 대한 조치는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과학원 산하 자연 기술 과학 계통 연구소들을 보더라도 그 성원의 압도적 부분이 현지 연구 기지에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연구소와 연구실들의 실험실이 벌써 실험실이라기보다 소규모의 공장 성격을 띠게 되였다. 함흥, 송림, 강선 등을 비롯하여 중요한 공업 지대에 과학 연구 중심들이 창설되고 연구사들이 실험실의 울타리를 벗어 나 직접 생산 일'군들과의 창조적인 협동 속에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 연구 사업이 선발된 전문적인 연구사들에 의하여서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낡은 제도하에서의 개념이 파탄되였다. 생산에서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수 많은 로동자, 농민들이 과학자들과 함께 과학 문제 토의에 진지하게 참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사람들은 연구사도 겸임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민족 문화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킬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인류 문화 력사에서 찬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과학 문화 유산들이 있다.

이 모든 과학 문화 유산들을 발굴 정리하며 그것을 옳게 섭취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 현실에 알맞게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오직 이러한 토대 우에서만 외국의 것도 옳게 받아 들일 수 있으며 또한 근로자들을 민족적 긍지와 향토애로 교양하는 데서 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놀 수 있다.

우리 당의 과학 정책과 우리 당이 과학자들 앞에 제기하고 있는 모든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에서는 적지 않은 부족점들과 결함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시급히 시정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우선 우리의 일부 과학자들 속에서 안일성과 해이성이 퇴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 행정 조직 사업에서 무책임성과 형식주의가 발로되는 그것이다.

오늘 기술 혁명 과업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며 인민 경제 발전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선행되여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문들에서는 과학 연구 사업이 활기를 띠지 못하고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한 연구 성과들이 완만하게 생산에 도입되고 있다.

또한 과학자 집단 속에서 창조적인 학술적 론쟁과 의견 교환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과업은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며 과학 행정 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과학자들 속에 건전한 학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우리 과학 연구 기관들은 과학 행정 조직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달성된 성과들이 지체 없이 생산에 도입되도록 함으로써 6개 고지 점령과 7개년 계획 수행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과학 간부 양성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당이 제시한 세계 선진 과학 수준을 따라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는 과학 간부 양성 사업을 개선하며 과학 일'군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원, 박사원 운영 사업이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위 론문 작성과 자격 시험들이 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오늘 당은 과학 사업 발전을 위해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 주고 있으며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과학자들은 남반부에서 량심 있는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 탐구의 길을 잃고 있는 것은 물론 호구지책을 항상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과학 간부 양성 사업과 과학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현존 통신 연구원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며 해당 부문 책임 일'군들과 지도 교수 및 연구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강한 요구성과 규률을 확립하는 문제가 필요하다.

최근 김 일성 동지는 근로자들의 문화 수준을 제고하며 그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한 새 형의 인간으로 교양 육성할 데 대하여 교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실로 중요한 과업이 부과되고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인민의 력사와 우리 나라의 지리, 자연 등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알기 쉽게 흥미 있게 서술하여 광범한 근로자들에게 선전 해설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당은 전면적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종국적 승리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촉진하는 사업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애국적 열성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호소하고 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발동되고 그들의 힘이 옳게 조직 동원된다면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딪치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우리는 해결 못 할 것이 없으며, 나라의 자립 경제의 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질 것이다.

당 생활의 강화는 당사업의 기본고리

최근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3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청산리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 행정에서 당이 쌓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당 내부 사업을 전면적으로 취급하고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을 더욱 강화하며 그의 전투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결론은 우리 당 사업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명시한 강령적 교시로서 우리 당의 강화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는 전원 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당 사업의 기본 고리는 우선 당원들의 당 생활을 옳게 지도하는 데 있으며 당 건설의 기초도 바로 당원들의 당 생활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밝히시였다.

그러므로 오늘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3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결정을 관철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각급 당 위원회들과 당 조직들이 김 일성 동지의 교시의 진수를 옳게 파악하고 당 생활 지도에 력량을 집중하여 당 사업과 혁명 과업의 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 나아가는 데 있다.

* *

당원들의 당 생활은 당 사업, 혁명 과업의 모든 문제 해결에서 만병 통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당은 당원 대중이 뭉친 조직이다.

《…당이 건전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구성하고 있는 매개 당원들이 건전해야 하며 당원들이 다 당의 조직 원칙에 의거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당원들이 당의 조직적 원칙에 따라 다 잘 움직이게 될 때 당은 강유력한 불패의 당으로 되며 자기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김 일성, 《당 조직 사업과 사상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당 생활은 당원들의 조직 생활이며 정치 생활이다. 그것은 당원들이 당 규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 생활이 강화되면 **우선 당원들의 당성이 단련되고 그들의 정치 의식 수준과 실무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당원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진정한 혁명 투사로 될 수 있다.**

당원들은 당 생활을 통하여서만 항상 서로 검토 비판하고 교양하면서 옳지 못한 것을 씻어 버리고 옳은 것을 배양 장성시켜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우리 당원들은 다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혁명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맹세하고 당에 들어 온 의식적 분자들이지만 절대적으로 준비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다. 맑스주의 변증법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사업도 부단히 변하고 사람의 의식도 부단히 변한다. 누구를 불문하고 자체를 부단히 교양 단련하지 않고 당의 통제 밖에서 산다면 비록 오늘까지는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래일에 가서는 과오를 범할 수 있으며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더우기 우리에게 아직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가 남아 있고 외부로부터 자본

주의의 영향이 침습해 들어 올 수 있는 조건에서 오직 당원들을 부단히 교양하고 당 규약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당 생활을 강화할 때야만 그들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다.

또한 당 생활이 강화되면 **모든 당원들의 사상 의지와 행동의 통일이 보장되며 그들이 당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됨으로써 당의 령도적 역할과 전투적 기능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당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 조직에 속해 있다. 우리 당 규약에 명시되여 있는 바와 같이 당원은 당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가하여 문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당 조직에서 위임된 분공을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은 이러한 조직 생활을 통하여 당의 사상과 의지 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당원들의 사상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자기가 맡은 당적 분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상 머리를 쓰고 움직인다면 당 조직은 움직이는 산 유기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며 당의 전투적 기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당을 강화하며 그의 전투력을 제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당 생활을 당 규약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도록 옳게 지도하는 것이다.

당원들 속에서의 당 생활의 강화는 간부 사업을 더욱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간부 사업의 바탕과 기초는 사실상 당원들의 당 생활이다.

간부들의 기본 표징인 정치적 표징과 실무적 표징은 그들의 당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당 규약에는 당원의 의무로서 모든 당원은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며 자기의 정치 및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여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 속에서 당 생활을 강화한다는 것은 당원들이 당 규약상 의무를 철저히 집행케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정치적 및 실무적 준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하며 이리하여 간부 원천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사실상 간부 양성 사업은 단순히 학교들에서나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계적인 당 생활을 통하여서만 당성이 강하며 전개력과 활동력이 있고 제기되는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유능한 일'군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부 양성 및 교양 사업 체계는 당 생활에 기초해서만이 철저히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당 위원회들과 당 조직들은 당 생활에 기초하여서만 당원들과 간부들의 당성 정도, 정치 실무적 준비 정도와 능력, 사업 작풍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간부들에 대한 환상을 철저히 근절하고 완전하게 파악이 있는 검열된 간부를 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부 선발 배치에서 당적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한다.

후비 간부의 육성도 바로 그 기초는 당원들의 당 생활이다. 당 생활은 당원들을 정확히 료해하고 후비 간부를 옳게 선정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그들을 소질에 맞게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한다.

비료를 많이 주어 잘 가꾸면 호박이 많이 달리듯이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옳게 키운다면 후비 간부의 육성은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다.

비료도 주지 않고 잘 가꾸지도 않으면서 행여나 호박이 달리지 않았는가 하고 호박 넝쿨만 뒤져서야 아무 것도 얻어 낼 수 없는 것처럼 당원들의 당 생활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후비 간부를 아무리 얻어 내려고 애써도 결국 헛수고

에 불과할 것이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결론은 당 생활의 강화가 간부 사업에 선행됨으로써만 후비 간부 육성 체계도 철저히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생활은 비단 당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혁명 과업의 모든 문제 해결에서도 만병 통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혁명가란 별다른 것이 아니다. 당원들이 당 규약에 충실하게, 당이 주는 혁명 과업을 옳게 수행하게 될 때 그들은 누구나 다 혁명가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된다.

우리 당 규약에는 당원들이 어떠한 혁명 과업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여 있다. 특히 당원의 의무 조항에는 우리 당의 당면 및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 임무를 비롯하여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당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자기의 정치 및 실무 수준을 제고하며 당성을 단련하고 당 생활을 강화하며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 모범이 되며 당의 유일한 규률을 준수하고 비판과 자기 비판을 활발히 전개하며 당의 비밀을 엄수하는 등 본질적 문제들이 반영되여 있다.

당원의 의무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당원들로 하여금 당 생활을 통하여 혁명가적 기풍을 수립케 하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 그들의 선봉적 역할을 비상히 제고시킬 수 있게 한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과 초소들에 당 조직들이 있으며 당원들이 군중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고 있다.

이 모든 초소들에서 당원들이 당 규약상 의무 수행을 통하여 자기가 담당한 혁명 과업 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하게 된다면 당 앞에 제기된 어떠한 어려운 혁명 임무도 능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건설에서 당 생활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거대하다. 각급 당 위원회들과 당 조직들이 이것을 옳게 인식함으로써만 당 사업과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 나아갈 수 있다.

＊　　　＊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당 생활 체계와 각급 당 조직들의 당 생활 지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문제이다.

당 생활 체계와 당 생활 지도 체계의 철저한 확립—이것은 당원들의 당 생활을 정상화하고 습성화하며 모든 당 조직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계통적인 지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우선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당원들의 당 생활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당원들의 당 생활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매개 당원들이 자기가 속한 당 조직을 통하여 당 규약상 의무를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실천하도록 제도화하고 습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제도화하고 습성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당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 생활에 참가하는 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으며 그보다 더 높은 임무는 없다. 당 생활은 당원들의 정치적 생명이다.

당원들은 당 생활을 우에서 조직해 주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 조직에서 당적 분공을 받고 그 실행 정형을 보고하며 다시 새 과업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나서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

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당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당 규약상 의무를 자기의 실생활에 구현할 수 있도록 당 규약의 본질을 깊이 연구 체득케 하는 것이다.

《당 규약은 당원들의 일체 활동과 생활의 기본 표준이며 기초이다》(김 일성 선집, 제 4권, 541페지).

당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 규약의 요구를 파악함이 없이는 당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사실상 적지 않은 당원들은 당 규약상 의무와 당 생활의 원칙, 당 규률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 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당원은 항상 당 규약을 심오히 연구하며 매 시기 제기되는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그와 밀접히 결부시켜 체득하는 동시에 당이 주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며 당 사업 토의와 당내 비판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오직 이렇게 될 때에만 당원들은 모든 일에서 항상 인민의 앞장에 서서 희생적으로 투쟁할 수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검박하고 겸손하며 서로 위하고 도와 주는 참된 인간의 모범으로 될 수 있다.

당 생활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 세포들에서 당원들의 당 생활을 정상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세포 생활은 당원들의 정치, 조직 생활의 기초이다. 건전한 세포 생활이 없이는 건전한 투쟁을 진행할 수 없으며 건전한 세포 생활이 없이는 당내의 사상적, 정치적 단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세포는 당원을 교양하며 당원들의 사상을 단련하며 당원들의 일상 생활을 지도하는 기본 조직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이 강유력한 당이 되려면 세포 생활의 강화가 첫째 가는 임무로 제기되는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1권, 1954년 판, 568페지).」

당원들의 당 생활을 옳게 조직 진행하기 위하여 당 세포들은 당원들이 규약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원의 의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조직하여야 하며 동시에 매개 당원들이 당 규약상 의무의 실천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분공을 주며 그것을 총화하는 조직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당적 분공에서 제외될 때 그들은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당 사업으로부터 리탈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포는 당원들의 성격과 능력에 맞게, 쉬운 것으로부터 점차 어려운 것에로,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당적 분공을 주고 그 집행을 통하여 당원들을 체계적으로 단련 육성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 생활 3년이면 대학 과정보다 낫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말씀 대로 당원들을 계획적이며 의식적으로 당 생활에 인입하여야 한다.

특히 당 세포들은 당원들의 규약상 의무 수행에서 약한 고리를 옳게 포착하고 목적 지향성 있게 고정적 분공과 림시적 분공을 옳게 결합시켜 분공을 조직하며 개별 지도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고리가 해결되면 다음 고리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분공을 다시 주며 계속 꾸준한 지도를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의 당 생활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들의 당 규약상 의무에 대한 인식 정도와 그의 실행 정형, 그리고 당적 분공에 대한 집행 여부가 정확히 총화되여야 한다.

당 생활 총화는 검토식으로가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꺼리낌 없이 말하며 주인답게 참가하게 되여야 한다. 또한 당 생활 총화에서는 당원들의 당 생활을 정확히 평가해 주며 긍정적인 것을 조장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점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이 정확히 강구되여야 할 것이다.

당 세포는 당원들의 당 생활을 종합적으로 료해 분석한 데 기초하여 세포 내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 본질적인 결함이 무엇인가를 옳게 총화하여야 한다. 특히 그 총화에서는 당 규약상 의무 집행에서 본질적인 결함을 비판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세포 내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명확하게 되고 대책도 정확하게 강구될 것이며 따라서 당원들의 당 생활 수준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또한 당원들의 당 생활을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류의할 것은 간부들로 하여금 당 생활에서 모범이 되게 하는 문제이다.

간부들은 당 세포에서 당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해당 당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당 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간부들이 당 생활을 통하여 당 결정 지시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당 사업 토의와 당내 사상 투쟁에의 적극적인 참가, 하부로부터의 비판과 대중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성실한 태도, 당원 및 비당원 대중에 대한 동지적 태도, 자체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등 실천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당 세포 내 전반적인 당원들의 당 생활을 이끌고 나아가도록 당 세포는 간부들의 당 생활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 생활 체계와 함께 그것을 옳게 조직 지도할 수 있도록 각급 당 조직들의 당 생활 지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 생활 지도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당원들의 당 생활이 정상적으로 옳게 진행되도록 당 위원회가 그에 대한 지도를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당 생활을 직접 조직하는 당 세포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도, 시, 군 당 위원회 및 공장 당 위원회들의 지도를 강화하며 특히 당 위원회들의 조직부, 선전 선동부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다.

당 위원회들과 부서들은 당 세포들에서 진행되는 당원들의 당 생활 정형을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경험을 일반화하며 결함을 시정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당 위원회들과 부서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 생활을 일상적으로 료해 장악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더욱 실속 있는 지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각급 당 위원회들과 모든 당 조직들이 당 사업의 기본 고리인 당 생활의 지도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당을 혁명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의 전투력을 급속히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당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의 역할

김 석 조

1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은 해당 당 위원회 상무 위원회 사업을 방조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구이다.

따라서 부서들의 활동은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 기관이며 모든 부문 사업의 참모부이며 지도적 력량으로서의 당 위원회가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복종된다.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은 매 시기마다 제기되는 당 정책과 당 위원회 결정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조직하며 그 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하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지도하며 제기된 문제들을 당 위원회에 제때에 반영하며 필요한 대책적인 의견들을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심의에 제기하는 등 사업들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들은 매 시기의 당 정책과 당 위원회 결정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기동성 있게 포치하며 당 조직들과 당원들을 그의 실행에로 조직 동원하며 집행 과정에서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 주며 나타난 부족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조직 지도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부서들은 진행되는 사업 정형을 수시로 당 위원회에 반영하며 료해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연구 분석한 기초 우에서 새로운 대책적인 의견들을 당 위원회에 제기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도, 시, 군 당 위원회들은 부서들의 도움을 받아 산하 당 조직들의 사업 정형과 군중들의 동태를 파악하게 되며 실정에 적응한 지도 방침을 제때에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은 해당 당 위원회의 팔다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당 위원회의 령도적 역할을 보좌하는 기둥으로서 당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도, 시, 군 당 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 데 대한 교시를 주실 때마다 당 기관들의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당 위원회 내 부서들의 역할을 높일 것을 강조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의 매 시기, 매 계단에 적응하게 도, 시, 군 당 위원회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할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그의 기구들을 개편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특히 우리 당은 최근 시기 이 분야에서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2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에서는 제 4차 당 대회가 제시한 7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 있게 실행하며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한 당적 령도를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특히 공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의 생산적 련계가 강화된 현 실정에 적응하게 공업에 대한 당적 통제와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에 공장, 기업소 담당 지도원들을 두며 부서들의 기구를 일부 개

편할 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그 후 김 일성 동지는 대안 전기 공장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공장 관리 운영 체계와 공장 당 사업 체계를 개편하며 공장 당 위원회의 기구를 개편할 데 대한 력사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그리고 최근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3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에서는 도, 시, 군 당 위원회의 매개 부서들이 사업할 방향과 방도들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며 당 사업을 가일층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당 건설에서의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

2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은 조직부, 선전 선동부, 경제 부서 할 것 없이 모두 다 당 사업, 사람들과의 사업을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3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조직부, 선전부, 경제 부서들이 다 당 사업을 위주로 하고 간부 사업을 첫째 가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며 당 조직들과 당원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데 모든 력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이 교시는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의 기본 임무를 명시한 것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서 명백하게 제시된 바와 같이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의 첫째 가는 임무는 간부들과의 사업이다.

간부들은 혁명의 지휘 성원이다. 간부들이 어떻게 꾸려지고 그들의 정치 사상적 리론 실무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문제는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당 사업에서 가장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간부 대렬을 계속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지도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다》(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라고 가르쳤다.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은 간부 사업을 위주로 하며 준비된 일'군들로 자기 부문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어떠한 복잡한 조건하에서도 당 정책에 립각하여 현실 문제를 옳게 분석하고 혁명 과업을 능숙하게 해결하여 나가도록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당 정책,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 전력을 다 하여야 한다.

당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이 당 생활을 당 규약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당원들의 당 생활은 례외 없이 당 조직을 통하여 진행된다. 즉 당원은 누구를 물론하고 당의 기층 조직인 세포를 통하여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며 일부 당원들은 당 위원회에서도 조직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의 당 조직 생활을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세포와 당 위원회를 잘 꾸리고 그를 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당 세포들과 당 위원회들이 다 잘 꾸려지고 그것들이 당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전체 당원들이 다 잘 발동되면 당은 혁명 과업 수행에서 자기의 선봉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며 당 조직들과 당원들이 다 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조직 지도 사업은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임무로 된다.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은 산하 당 조직들의 구성 및 활동 정형과 당원들의 당 생활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하며 그를 부단히 개선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사업한다면 당원들의 당 생활은 강화될 것이며 100만 당원은 모두다 강력한 당원으로, 당 조직들은 모두다 움직이는 산 유기체로, 전 당은 강철의 대오로 장성 강화될 것이다.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은 당 내부를 꾸리는 사업과 함께 대중을 당 주위에 단결시키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당이 진실로 강화되자면 당 내부를 꾸리는 것만으로써는 부족하다.

당은 광범한 대중을 자기 주위에 튼튼히 집결시킬 때만이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 강화된다. 그러므로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은 당 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시켜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굳게 집결시키며 소수 적대 분자를 고립시키는 투쟁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만일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튼튼히 할 수 없을 것이며 적대 분자들의 준동과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의 당내 침습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당은 혁명을 하기 위한 조직이며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부대이다.

현 시기 당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은 경제 건설 사업에 자기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며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 당 경제 정책을 해설 침투시키며 제기된 경제 과업을 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그의 실행에로 당 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지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이 자기 앞에 제기된 기본 임무를 성과 있게 실행하며 해당 당 위원회 사업을 적극 방조하기 위해서는 매개 부서들의 분공을 명확히 하며 그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3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결론에서 조직부와 선전 선동부는 다 같이 당 내부 사업을 보는 부서로서 당 간부 사업과 산하 당 조직들을 틀어 쥐고 당원들의 당 생활을 지도하며 당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 조직들과 당원들을 다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조직부는 당 대렬을 부단히 정비하고 공고화하는 대렬부이며 당 생활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당 생활 지도부라고 말할 수 있다》(김 일성, 《당 조직 사업과 사상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조직부는 당 내부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지도 통제하며 당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 조직들과 당원들을 모두다 움직이게 함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한다.

조직부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선전 선동부와의 밀접한 련계를 맺고 그와 모든 사업을 협의하며 통일적인 보조를 맞추어 나아간다.

선전 선동부는 조직부와 함께 당원들의 당 생활을 연구 지도하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사상 정치적으로 교양하는 교양부이며 군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선동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조직부와 선전 선동부와의 관계는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와 약제사와 같은 것이다.

조직부가 사람들이 나쁜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를 진찰하는 의사라면 선전 선동부는 그에 적응한 약을 만들어 주는 약제사와 같다.

경제 부서들은 자기 부문의 행정 경제 간부들을 책임적으로 꾸리고 교양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과의 일상적인 사업을 통해

서 해당 부문 앞에 제기되는 당 정책을 관철한다. 경제 부서들은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정치적 지도와 함께 기술 경제 사업에 대한 조직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3

금년도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우리의 긴장된 투쟁과 당 사업을 가일층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3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과업은 도, 시, 군 당 위원회들과 그 부서들의 역할을 더욱더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의 역할이 높아지면 질수록 모든 부문에서 당 사업은 깊이 있게 진행될 것이며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한 대중의 투쟁은 조직화되고 당 조직들의 령도적 역할과 전투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우선 중요한 것은 준비된 일'군들로 매개 부서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 리론, 실무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이다.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에 새로 많은 일'군들이 등용 배치된 현 조건 하에서 특히 이 문제는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신입 지도원들과의 사업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도, 시, 군 당 위원회 책임 일' 군들은 지도원들에게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을 깊이 연구시키며 일상적인 담화를 통하여 그에 대한 일치한 리해를 가지고 지도 사업에 나가도록 하며 어느 때나 당 정책에 근거하여 현실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도원들은 현지에 데리고 내려 가 가르쳐 주는 사업을 자주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일'군들을 육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당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 시, 군 당 위원회들은 우선 간부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며 그의 모범을 통하여 일'군들을 교양하며 매개 일'군들이 자체의 당 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단련하도록 일상적인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부서들의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그의 직능을 정확히 작성하고 부서 내 매개 일'군들에 대한 분공을 옳게 조직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부서들의 직능 설정, 매개 일'군들에 대한 분공 조직—이것은 부서들의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본 출발점으로 되기 때문이다.

당은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의 내부 질서를 강화하며 모든 사업을 제도화하며 습성화할 것을 긴절히 요구하고 있다.

도, 시, 군 당 위원회들은 부서들의 직능을 정확히 설정하고 매개 일'군들에 대한 분공을 철저히 조직하는 동시에 부서 내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도, 시, 군 당 위원회들은 부서들의 전투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매개 부서들은 매 시기 당이 제시하는 당 정책과 해당 당 위원회의 분기별 계획에 엄밀히 립각하여 사업의 선후차를 정확히 구분하고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방향에서 월별 전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근거하여 매개 일'군들의 일별, 주별 행동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의 실행 정형을 월별, 주별로 총화하여야 한다.

부서들의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부에 대한 지도 체계를 정확히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일'군들이 하부에 내려 가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부장 이상 간부는 월 10일 이상, 지도원들은 15일 이상씩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내려 가도록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하부에 대한 지도 체계의 수립은 단순히 밑에 내려 가는 것만으로써는 부족하다. 반드시 준비 있게 내려 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 실정을 정확히 료해하며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 주고 우점을 일반화하며 결함을 제때에 시정하여 주는 산 지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서들은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대행을 철저히 근절하고 행정 경제 기관들이 당 위원회가 제시한 사업 방향에 근거하여 옳게 사업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도 체계 확립에서 총화 사업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총화는 일'군들의 사업 정형과 하부 실정을 제때에 료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적응한 지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하며 다음 지도를 성과 있게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또한 총화는 지도 사업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찾아 내고 그를 지도원들에게 일반화함으로써 그들의 정치 실무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 사업 총화는 준비 있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즉 매개 일'군들의 출장 전 준비로부터 실정 료해와 사업 조직과 그의 지도 방법, 결속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들과 당 생활 정형 등을 깊이 분석 총화하며 이 행정을 통하여 일'군들에게 당 정책의 본질과 사업 방법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도, 시, 군 당 위원회 부서들은 사업을 늘어 놓지 말고 한 개 단위, 한 개 부문씩 깊이 파고 들어 가 경험을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함으로써 한 점을 뚫고 그것을 통하여 사업의 전반을 개선하는 방법을 관철하여야 한다.

또한 깜빠니야 사업과 항구적인 사업, 부문 사업과 사업 전반을 옳게 결합시켜 나아감으로써 사업에서 초래할 수 있는 일면성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도, 시, 군 당 위원회들은 부서들의 사업에 일상적인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부서들의 사업 정형을 계획적으로 상무 위원회 또는 부장 회의에서 청취 토의하고 해당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부서들의 사업 수준은 급격히 제고되며 해당 당 위원회 상무 위원회 사업을 방조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쓰러졌으나 골짜기와 움푹한 곳에 있던 놈들은 우리가 소수임을 알자 악착스럽게 달려 들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새로 보충된 성원까지 200명도 넘었다.

우리는 탄알을 아껴 쓰며 놈들과 싸웠다.

적측에서 날아 오는 수류탄을 되받아 던지기도 하면서 원쑤들을 물리치군 하였다.

얼마 후 우리에게는 탄약이 떨어지고 단 몇 개씩의 수류탄밖에 남지 않았다.

놈들은 수'적 우세를 믿고 계속 공격하여 왔다.

우리는 원쑤들을 바싹 접근시킨 다음 일제히 수류탄 벼락을 안기군 하였다.

놈들의 네 번째 돌격을 물리쳤을 때 우리에게는 수류탄이 한 개씩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또다시 이리떼처럼 달려 드는 놈들을 쏘아 보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였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211 고지를 위하여 단 1초라도 시간을 더 끌어야 했다.

아군의 반돌격이 있을 때까지 결단코 물러설 수 없었다.

어느덧 원쑤들은 30메터까지 접근했다.

우리 7명의 습격조원들은 마지막 수류탄을 뽑아 들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놈들을 맞받아 뛰여 나가려는 순간이였다.

《파광 파광》하고 불의에 아군의 위력있는 박격포탄이 련방 놈들의 무리 속에서 터지기 시작하였다.

아군 박격포 중대 전투원들은 박격포신을 곧추 세워 그러안고 전쟁 력사에 없는 45메터의 근거리 사격을 진행하는 무비의 용감성과 대담성을 발휘하였다.

때를 같이 하여 아군 반돌격이 시작되였다.

1,211 고지 일각에 게바라 올랐던 원쑤들을 물리친 용사들은 서로 얼싸 안고 포연에 그슬린 얼굴들을 서로 비볐다.

1,211 고지를 지켜 낸 영예와 긍지로 하여 우리는 목이 터지도록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1,211 고지 앞 골짜기는 원쑤들의 시체로 산을 쌓고 피로 강물을 이루게 하였다.

적들은 1,211 고지를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상한다 하여 《상심령》 이라고 하였고 고지 앞 골짜기에 들어 가기만 하면 헤여 나올 수 없다 하여 《함정'골》이라 불렀다.

실로 전쟁 3년 간에 서울, 대전, 안동, 인천, 청천 강반, 장진호반, 상감령 전투들에서의 아군에 의한 적들의 대참패라든가 《비행기 사냥'군조》에 의한 미제 공중 비적의 대타격 등 적들의 《기술적 우세》가 수치스럽게 격파 당한 실례는 허다하다.

펜타곤은 맥아더, 리치웨이, 밴 플리트, 워커, 띤 등 이름난 살인 장군들을 조선 전선에 파견하였으나 맥아더는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고 띤은 불명예스러운 포로가 되였으며 워커는 추악한 송장이 되였다.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과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 선 조선 인민과 인민군 용사들은 쏘련을 비롯한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받으면서 형제적 중국 인민 지원군과의 협동 작전 하에 원쑤들의 침략적 야망을 산산이 분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영예를 영광스럽게 수호하였으며 세계 평화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조선 인민의 승리는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궐기한 인민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 인민 앞에 똑똑히 보여 주었다.

미제는 조선 전쟁에서 자기의 력사상 전례 없는 패배를 당하였다. 미제는 3년 간의 조선 전쟁에서 200억 딸라 이상의 군사비와 7천 300만 톤의 군수 물자를 소모하였으며 39만 7,543명의 미제 침략군을 비롯한 109만 3,839명의 인'적 물적 손실을 당하였다.

조선 인민은 미제의 200년 래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짓부셔 버렸다.

《신화는 깨여졌다. 우리가 남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였다》. 미국 호전광 마샬의 입에서 이러한 한탄의 넋두리가 흘러 나오게 된 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계속 침략적 망상에 매여 달리고 있다.

그들은 조선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의 수차에 걸친 제의와 그의 실현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하여 전쟁 도발 정책으로써 대답하고 있다.

미제는 조선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각종 신형 무기를 반입하고 있으며 《특수 훈련》을 받은 새로운 전투단들을 미국 본토로부터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있으며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고 항만을 수축하며 군용 도로를 닦고 군수 창고를 세우는 등 군사 시설 확장에 혈안이 되고 있다.

최근 미제와 그 주구들은 《비상 전투 계획》, 《전시 및 물자 수송 계획》 등 일련의 작전 계획들을 작성하고 전선 지역 부대들에서 배비 변경을 진행하는 한편 공화국 북반부 《공격》을 목표로 하는 미군 및 괴뢰군 《협동 기동 연습》 등 군사 도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미제 침략자들은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자들까지 남조선에 끌어 들이며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 야합시켜 침략적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에 묶어 세우려고 날뛰고 있다.

펜타곤은 최근 악명 높은 전쟁 미치광이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군사 시설들을 시찰케 하였으며 미제 침략군과 남조선 괴뢰의 두목들을 뒤'골방에 모아 놓고 흉악한 전쟁 음모를 꾸미게 하였다.

지난 력사적 경험은 이런 호전광들의 분주한 《행각》이 침략적 불장난의 징조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 미제 호전광들이 꼬리를 물고 번질나게 남조선에 기여 드는 사실은 바로 1950년의 그 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

그러나 원쑤들의 이 모든 도발 소동은 궁지의 나락에서 허덕이는 자들의 절망적인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조선 인민의 혁명 력량은 9년 전 미제가 조선 인민 앞에서 무릎을 꿇던 그 때보다도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다.

당의 령도 하에 우리 인민은 미제 침략자들을 타승한 그 기세로 짧은 기간 내에 전쟁 피해를 복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원쑤들의 침공도 이를 순식간에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 력량을 가지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투쟁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파쑈적 폭압 하에서도 끈기 있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인민의 편에는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이 확고히 서 있으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정전 후 남조선의 경제적 위기와 민생고는 극도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적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고 식민지 통치 체계는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남북 조선의 판이한 두 현실에 대하여 베네주엘라의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썼다.

《…북쪽엔 꽃밭
　남쪽엔 녹쓸은 칼
　북쪽은 펼쳐 놓은 책
　남쪽엔 온통 금령(禁令)
　북쪽엔 끝 없는 기쁨
　남쪽엔 끊임 없는 근심…》

광명과 암흑, 번영과 몰락—조선의 북과 남에 조성된 정세는 외국 사람의 눈에도 뚜렷한 대조로 반영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이 모든 정세를 똑똑히 보아야 하며 력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을 마음 대로 착취하고 억압하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 갔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전쟁에서 당한 참패의 교훈을 잊고 무모한 불장난을 감행한다면 그들은 백배 천배의 타격을 당할 것이며 《제 2 띤》, 《제 3 워커》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필자는 공화국 영웅이며 인민군 소좌)

아세아에서의 미제 호전광들의 위험한 불장난

황 석 파

제국주의자들이 궁지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 발악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오늘 극동과 아세아 지역에서 미제 호전광들이 바로 그렇게 발악하고 있다.

최근 미제는 라오스, 남부 월남, 기타 지역에 미군 전투 부대들과 작전 무기들을 계속 대량적으로 끌어 들이고 전쟁 도발에 미쳐 날뛰고 있다. 미제 호전광들은 아세아에 더욱 빈번히 드나들면서 각종 전쟁 모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직접 침략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 미국 어용 출판물들까지도 《미국은 아세아에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선 전쟁식의 전쟁에 접근하는 길을 추구》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오늘 이 지역에서 인민들의 완강한 반제 반괴뢰 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식민지 통치 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으며 그들의 군사 전략적 지탱점들이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속담에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격으로 미제는 괴뢰들에게 《혼》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 수백억 딸라와 막대한 살인 무기를 쥐여 주고 있지만 숨을 거두고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군사 파쑈 제도의 통치 기구는 뒤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찬란한 사회주의 건설과 근로자들의 행복한 생활을 우러러보며 그에서 고무를 받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암담한 처지와 불행이 미제와 그 괴뢰들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저주롭고 한 많은 세상을 뒤엎기 위하여 근기 있게 투쟁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마이켈 몽그도 《한국에는 폭풍 전야의 정적이 있다. 박 독재 체계의 불안정성은 벌써 미국의 정책 립안자의 머리를 괴롭히게 하고 있다. 징조가 위험해짐에 따라 검열과 탄압은 강화된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폭동이 일어 난다고 하면 1960년 4월 학생 폭동과 같은 자연 발생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또한 1961년 5월의 군사 쿠데타와 같은 권력 쟁탈에 눈이 어두운 자가 행제로 인기 없는 정권을 가로 채는 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언제 일어 난다는 징조는 없다.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가 뒤집힐 때에는 조선 독립과 통일을 지향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책은 응당 실패할 것이다》라고 썼다.

남부 월남에서도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통치 기구는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 있다. 사태는 라오스에서도 동일하다. 라오스 애국 군대는 이미 나라의 3분의 2를 해방시켰고 해방 지역에 대한 반역도당 군대의 끊임 없는 배신적인 공격을 물리치면서 원쑤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최근 라오스의 애국 군대는 특히 미제와 그 괴뢰들의 전략적 요충이였던 남타를 해방함으로써 이 지역을 기지로 하여 라오스의 해방 지역들을 탈환하려던 원쑤들의 기도를 분쇄하였으며 그들을 더욱더 헤여날 수 없는 막다른 궁지에 몰아 넣었다.

그리하여 라오스 인민은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으로써 라오스 애국 력량을

말살하려는 미제의 침략적 기도를 파탄시키고 마침내 라오스 련립 정부의 수립을 실현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고 자국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라오스 인민의 투쟁에서 실로 커다란 승리로 된다.

《아세아의 반공 핵심》이라는 일본에서도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그야말로 사면 초가의 궁지에 빠져 있다.

미제가 오늘 아세아에서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국내에서 겪고 있는 위기와도 관련된다.

경제의 군사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련을 겪고 있으며 그의 전망은 갈수록 암담하다.

작년에 케네디가 미국의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 공업 생산을 5% 장성시키겠다던 호언은 한갓 공담으로 돌아갔다.

공업 생산은 침체와 쇠퇴의 일로를 걷고 있다. 일례로 강철 공업의 조업률만 보더라도 55%에 불과하며 그 생산은 3월이래 30% 이상이나 축감되고 있으며 채굴 공업은 1957년 수준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정 및 국제 수지 면에서 적자는 격증되고 해외에로의 딸라의 류출은 전후 최고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번의 주권 시세 폭락은 앞으로 닥쳐 올 공황의 심도를 암시하여 준다.

생산과 시장 간의 모순은 날로 심화되고 계급적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6백만 명이 넘는 실업군과 근로자들에게 사정 없이 들씌우고 있는 군사비 부담은 미국 지배층에 대한 미국 인민의 불만과 항거를 촉발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작년에 있었던 수십만의 미국 강철 로동자들의 대파업 투쟁은 이를 실증하여 준다.

미제는 국내외적으로 둘러 싸인 이러한 위기로부터 출로를 침략과 전쟁 도발 책동에서, 군비 확장 정책에서 찾고 있다.

케네디 행정부는 《세계 제패》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아세아에서 자기들의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케네디는 집권하자마자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예산을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수요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전쟁이나 국부 전쟁, 핵전쟁이나 보통 전쟁, 대전쟁이나 소규모 전쟁 등 할 것 없이 모든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떠벌렸던 것이다.

사실상 오늘 걷잡을 수 없는 쇠퇴와 몰락의 시기에 미국의 억만 장자들의 사환'군으로 등장한 케네디가 달리는 행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겉으로는 《평화》,《군비 축소》에 대하여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1년도 못 되는 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군비 지출액을 증가하여 미국 력사상 평화 시기로서는 최고에 달하는 방대한 군사 예산을 꾸미고 있다.

이와 같은 전쟁 준비에 기초하여 미제는 아세아에서의 침략과 전쟁 도발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 준비에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래년도 미국 《방위 지원비》의 75% 이상을 극동 지역에 배당하였으며 케네디가 이에 덧붙여 《극동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군사 원조 중 태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궁지에 빠진 저들의 식민지 통치 기반을 수습하며 인민들의 반미 반괴뢰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악명 높은 《국부 전쟁》 도발 책동에 매여 달리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전면 전쟁》 준비를 강화하며, 군수 생산을 자극하여 군수 독점체들의 돈주머니를 불쿠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미제는 민족해방 투쟁을 탄압 말살하며 무장 간섭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동력을 구비한 륙군 공수 부대, 해병대 전술 공군 등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지배 계층들은 아세아에서 저들의 침략적 기반을 근저로부터 뒤흔들고 있는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국부 전쟁》의 방법으로, 무력 간섭의 방법으로 탄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제는 바로 이러한 《전략》에 기초하여 남부 월남과 라오스에 자기의 전투 부대들을 투입하여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감행하여 나서고 있으며 이 지역을 《국부 전쟁》의 《시험장》으로 전변시키고 있다. 최근 미제는 《라오스의 위기에 대처》한다는 구실 밑에 수천 명의 미군 지상군 및 공군 부대들을 타이에 급파하고 영국을 비롯한 추종 국가 무력을 끌어 들임으로써 이 지역에서 엄중한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 심지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격으로 남조선의 괴뢰들과 장개석 도당들까지 미국의 《군용 마차》에 매여 달려 이 위험한 불장난에 끌려 들어 가고 있다.

타이에로의 미국 전투 부대의 대거 파병은 미제가 벌써 동남 아세아 전략의 일환으로서 타이에 자기의 침략적 요충 지대를 형성하려던 기도를 실현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미제는 타이를 동남 아세아에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군사적 근거지로, 나아가서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 월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략적 기지로서 전변시키고 있다. 지금 타이에는 미국이 지도하는 《반게리라 전투 훈련》 학교가 있으며 라오스와의 접경 지대에는 3만 명의 《게리라 부대》가 집결되여 있다. 더욱 악랄한 것은 미제가 《유격전》과 《반유격전》을 배합한다고 하면서 작년보다 2배가 넘는 군사 《원조》를 타이 괴뢰 도당에게 주어 타이 《유격대》로 하여금 라오스의 애국 군대를 반대하여 더욱 대대적으로 진공케 할 것을 획책하고 있는 사실이다.

미제는 이 지역에서 전면적인 군사 행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군사 지휘 체계를 단일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남부 월남 및 타이 미군 합동 사령부》를 조작하였으며 세아토 추종 국가 군대를 긁어 모아 《세아토 합동 전투 사령부》를 새로 설치하려 하고 있다.

미제는 동남 아세아에서 뿐만 아니라 남조선과 대만 해협에서도 각종 전쟁 소동을 일으키면서 《국부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미제가 아세아에서 《국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리용하고 있는 것은 《특수 부대》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특수 부대》를 확장하며 그의 전투 기능을 높이는 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는 《반게리라 특수 훈련》을 받은 《특수 부대》들과 《고문》들을 남부 월남, 타이 및 기타 지역들에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히 투입하고 있다.

미제가 극동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과 전쟁 준비를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다른 하나는 괴뢰들을 한데 묶은 《진두 지휘》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아세아를 아세아인들 끼리 싸우는 전쟁 마당으로 되게 하며 아세아인들을 총알받이로 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피하고 있다.

원래 전후 년간에 미제는 극동과 아세아에서 유일한 《태평양 동맹》이라는 군사 쁠럭을 조작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였다. 그렇게 되자 미제는 《안쥬스 동맹》이니 《세아토》 니하는 것을 조작하였다. 이제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이 조작된다면 그것은 아세아에 있는 미국의 모든 괴뢰들을 여러 가다리로 묶어 세워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반공 군사 포위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된다.

오늘 미제가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중추로 하는 침략적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기 위해 그처럼 혈안이 되고 있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미제는 아세아에서 《공산 위협》에 대치한 《공동 방위》의 필요성을 괴뢰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을 전쟁 준비에 내몰고 있다. 아세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준비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제는 미제의 침략 전쟁에 편승하여 자기의 대외 팽창을 실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오늘 미국 출판물들은 일본 《자위대》가 미 극동군과 《공동 작전》을 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국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아세아의 광범한 《중간 지대》를 탈취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독자적인 중립 정책을 실시하는 아세아 중립 국가들을 친미 괴뢰 정권으로 교체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자기의 침략적 기반을 강화하며 력량 관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려 하고 있다.

미제는 캄보쟈, 비르마, 인도네시아, 쎄일론, 네팔 등에서 반정부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미제는 또한 아세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불화와 반목을 조성하기 위해 갖은 흉책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중—인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백방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량국 간에 분쟁을 조성하려는 더러운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아세아에서 일대 위기에 처한 미제가 무너져 가는 저들의 식민지 통치 체계를 유지하며 침략과 전쟁 도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극동과 아세아에서 추구하고 있는 미제의 전쟁 정책은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헤여날 수 없는 위기의 진흙탕 속에 빠지게 할 뿐이다.

미제국주의자들 앞에는 오직 죽음과 멸망만이 있다.

아세아 인민은 지난 날의 아세아 인민이 아니다. 아세아는 각성되였다.

아세아 인민들은 반제 투쟁에서 단련되였으며 단결되였다.

오늘 싸우는 아세아 인민의 편에는 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압도하는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강유력한 사회주의 진영이 서 있으며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이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아세아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도 격파할 수 있는 정신적 및 물질적 력량을 가지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전쟁의 력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아세아에서 감히 또다시 전쟁의 불'길을 일으킨다면 조선 전쟁에서 보다 더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며 미제의 《군용 마차》에 매여 달린 자들도 그들이 지른 불 속에서 타죽고야 말 것이다.

지금 라오스, 남부 월남 인민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미제와 그 괴뢰들에게 죽음을 주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서부 이리안을 계속 강점하려는 화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서고 있다.

남조선, 대만, 일본 등 미제가 발을 붙이고 있는 아세아의 모든 곳에서 반미 투쟁이 치렬히 전개되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 체계는 종국적으로 무너지고야 말 것이며 그들의 군사 전략적 지탱점들은 청산되고야 말 것이다.

승리는 싸우는 아세아 인민들에게 있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 도발의 위험한 불장난을 지체 없이 중지하고 남조선, 대만, 남부 월남, 라오스, 타이 등 그가 발을 붙이고 있는 곳에서 물러 가야 한다.

군사 《정권》의 반동적 농촌 정책

리 시 강

최근 군사 통치배들은 미제의 조종하에 자기들의 경제 정책의 중심이 《공업화에 의한 농촌 진흥이 아니라 농촌 진흥에 의한 공업화》에 있다고 하면서 《중농 정책》(重農政策)을 내걸고 그것을 통하여 농민들을 《구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집권》 이후 남조선 농촌을 더욱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빠뜨려 놓은 자들이 요사이 와서 왜 이처럼 농촌에 관심이 큰가?

그것은 오늘 그들이 처하고 있는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와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다.

지난 1년 여의 기간에 군사 통치배들의 매국 배족적 정체는 날날이 폭로되였으며 군사 《정권》은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있다.

경제는 더욱 혹심하게 파괴되고 민생고는 지금 극도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군사 정변》 후 남조선 공업은 전면적으로 파산되여 80% 이상이 조업 단축 및 휴업 상태에 있다.

군사 통치배들은 이러한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기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하여 남조선 농촌을 더욱 철저히 지배하고 농촌에 자기의 파쑈적 통치의 정치적 지반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농민 수탈을 더욱 강화하여 자기들에게 당면하게 요구되는 경제적 밑천을 얻어 내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박 정희 일당의 농촌 《정책》은 그 선행자들과 본질상 아무러한 차이도 없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농촌 진흥》이란 허울 좋은 구호를 내걸고 더욱 파렴치하고 악랄한 것으로 되였다는 것 뿐이다.

군사 통치배들이 그토록 농촌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은 우선 지주, 부농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자기들이 의거할 계급적 지반을 마련하려는 데 있다.

오늘 남조선 농촌에는 일제 통치 때보다 더 가혹한 소작 제도가 지배하고 있으며 토착 지주들과 경작지에 거주하지 않은 부재 지주들이 부활되여 봉건적인 가혹한 착취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 농민들 속에서는 이를 반대하여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지향이 날로 커가고 있다.

그러나 군사 통치배들은 《집권》 초기부터 수차에 걸쳐 《토지 개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농민들의 요구를 억압 말살하는 한편 지주들의 리익을 옹호하여 나서고 있다.

더우기 박 정희 일당은 《분배 농지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을 통하여 소위 《분배 농지》 중 이미 지주들에게 재집중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농지 개혁 사업 정리 요령》 및 《개간 촉진법》 등을 공포하고 《국유지》의 일부와 《귀속 농지》 및 미 개간지들을 불하하는 등으로 지주, 부농들의 소유 하에 토지가 다시금 집중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군사 통치배들이 지주, 부농들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농산물 생산의 다각화》라느니 지방의 지리적 조건과 특성에 알맞게 《지역 농정》을 실시한다느니 하는 등 일련의 농산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농산물 생산의 《다각화》란 미명하에 축산, 양잠, 공예 작물(피마자, 아마, 유지 작물…) 등의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농산 《정책》은 축산물, 공예 작물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여 그의 수출을 증대시켜 많은 외화를 획득하려는 것이며 또한 농촌에서 지주, 부농들을 치부케 하며 그들을 비호 육성하려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공업 경제가 여지없이 파탄된 형편에서 중요 수출 상품 중 많은 부분이 농산물로 되고 있다. 군사 통치배들은 금년도에 남조선 총수출 및 《군납》 계획의 50% 이상에 달하는 3,700만 딸라를 농산물의 수출 및 《군납》에 의하여 얻으려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 통치배들은 수출 및 《군납》품으로 되고 있는 축산, 양잠 및 공예 작물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액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련의 《특혜》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 조치는 축산 및 양잠업의 거의 전부가 지주, 부농들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다는 사정으로 보아 농촌 착취 계급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여 주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군사 통치배들은 지주, 부농들의 리익을 백방으로 옹호하는 한편 그들에 의거하여 자기들의 지배 체계를 강화하려고 날뛰고 있다. 그들은 《농촌 지도 체계의 일원화》란 명색 밑에 농촌 《지도 간부》들을 꾸림에 있어서도 농촌의 반동 분자들 중에서 가장 《반공》 분자들인 지주나 착취 계급 출신 제대군인들을 군수, 리, 동장, 《농업 조합》장 및 기타 사회 단체의 지도적 지위에 등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로 지주, 부농들을 중심으로 하는 파쑈적인 사회 단체의 조직을 통하여 그의 정치적 지반을 조성하려고 책동하고 있는바 《재건 청년회》, 《재건 부녀회》 또는 《농촌 청년 학교》 등의 명목 하에 군사 파쑈층의 《친위대》적인 세력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현재 예비 사단의 장병들과 제대 군인들에까지 소위 《영농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들을 농촌에 파견하여 이러한 파쑈적인 《친위대》를 조직하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군사 통치배들이 《중농 정책》에서 노리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바로 지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들이 의거할 사회 정치적 지반을 조성하려는 데 있다.

군사 통치배들이 농촌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또한 방대한 군사비와 이른바 《5개년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농촌을 희생시켜 얻으려는 데 있다.

이러한 농촌 《정책》의 략탈적 본성은 조세 《정책》, 농산물 략탈 《정책》 및 농산물 가격 《정책》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조세 《정책》에 대하여 본다면 군사 불한당들은 농민들에 대한 《농지세》(과거의 《토지 수득세》) 부과액을 대폭 인상하였다.

군사 통치배들은 장 면 괴뢰 정권 시기에 재정된 《토지 수득세》를 현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부과 기준액을 평균 10% 이상 인상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에 비하여 작년도에 《농지세》를 15%나 더 많이 징수하였다.

더우기 군사 통치배들은 《농지세》를 종전의 루진세로부터 비례세로 개정함으로써 지주, 부농에게는 그 부담을 약 50%나 덜어 주고 반면에 빈농민들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들씌웠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그들은 간접세를 작년보다 34%나 증대시킴으로써 일반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일층 강화하고 있다. 금년도 간접세 총액 1,234억환 중 약 700~800억 환을 농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군사 통치배들은 또한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 현물 략탈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1957년 이후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하여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량곡 매상제(실질적으로는 공출제)를 복구하여 생산비보다 약 40%나 낮은 가격으로 214만 석이나 략탈하였으며 이외에도 량곡 《담보 융자》, 《교환곡》, 《대여곡》, 《농지 대'가 상환곡》의 회수 등을 합하여 전년도보다 60%나 더 많은 총 480만 석을 략탈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량곡 《매상》과 《담보 융자》를 실시하고 또 73만 톤이나 되는 다량의 미국 잉여 농산물을 수입하여 곡물 가격을 강압적으로 낮추는 한편 공업 생산물 가격을 인상시켜 협상 가격 차에 의한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 통치배들은 《물가 조절에 관한 림시 특별 조치법》이라는 것까지 발표하여 저미'가 《정책》을 실시할 방침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공업 생산물은 가격 통제품종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공업 상품 가격을 임의로 올릴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지난 3월 현재만 하여도 곡물 가격은 작년 5월 중순에 비하여 14.6%나 폭락한 반면에 곡물을 제외한 공업 생산물 가격은 14.9%나 대폭적으로 올랐다.

이와 같이 공업 생산물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비료 가격은 종전보다 2배 이상이나 인상되였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약 500억 환(매상 가격으로 환산하여 약 180만 석)의 손실을 보게 되였다.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농민들에 대한 군사 통치배들의 수탈이 강화된 결과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더욱 격감되였으며 그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현재 남조선 농촌에서는 절량 농가가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

곡창 지대로 알려져 있는 전라 북도에서만도 군사 《정권》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절량 농가가 13만여호(도내 총 농가 수의 약 50%)나 된다.

《보리 고개》라고 하는 6월에 와서 남조선에서 절량 농가 수는 무려 138만 여호에 달하고 있다.

령세 농민들은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다가 영농 자금과 비료도 얻을 수 없어 금년 농사는 막연한 형편에 있다. 더우기 한발과 수재가 빈발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농민들은 땅을 부둥켜 안고 한탄밖에 할 수 없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은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자체 구호》, 《절미 운동》 등 공담만을 늘어 놓고 있다.

극도의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고 있는 남조선 농민들은 군사 《정권》의 략탈적이며 지주 본위의 농촌 《정책》에 격분하여 그들에 대한 불만과 항거 기세를 날로 높이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토지의 재분배 및 토지의 략탈 반대 등 토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각종 형태의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로동계급의 령도 하에 모든 불행의 화근인 미제를 남조선으로부터 쫓아내고 그의 주구 박 정희 일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완강히 나섬으로써만 온갖 착취와 빈궁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작가와 현실

송 영

1

작가가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작품을 창작할 수도 없다.

현실은 어떤 제도 밑에서도 어떤 시기에도 언제나 있는 사회 생활적 실재이다. 자본주의 제도 밑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 있고 사회주의 제도 밑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현실이 있다.

따라서 한 제도, 한 사회 하에서 사는 작가들은 그때 현실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 무슨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작품들에 그때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즉 그 관점과 취재 방향과 형상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들은 진보적인 작가와 반동적인 작가로 나뉘여진다.

진보적인 작가들은 현실을 보되 그 알맹이를 찾아 내며 항상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그린다. 반동적인 작가들은 현실의 껍데기를 알맹이와는 관계없이 보며 그것조차 반동 통치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검은 것도 흰 것이라고 우겨 댄다.

인민의 작가들은 착취 계급이 사회를 지배하고 생산자 대중이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던 계급 사회에서도 항상 현실 속에서 즉 근로하는 인민 대중 속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고 창작하였다.

우리 나라가 낳은 세계적 작가인 박 연암도 당시 서민 계급 속에 깊이 들어 갔음으로 해서 당시 인민 대중의 참된 생활 모습과 미래에 대한 리념이 힘있게 반영된 사실주의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만일 박 연암이 행랑아범, 지게'군, 왕십리 농민들 속에 깊이 들어 가지 않았더라면 《말 거간 전》이나 《예덕 선생 전》을 창작할 수 없었을 것이며 조국 산천을 두루 다니지 않았더라면 《총석정 해돋이 구경》과 같은 시도 읊지 못했을 것이다.

같은 시기, 같은 제도 밑에서도 진보적인 인민의 작가들은 항상 인민 생활 속에 깊이 들어 갔으며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을 가르쳐 주면서 항상 인민 대중의 리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붓대를 예리한 무기로 삼아 왔다.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도 우리 나라의 진보적인 카프 작가들은 항상 싸우는 근로 인민 대중 속에서 생활하고 투쟁하고 창작하였다. 카프 시기의 일련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들은 한 말로 말해서 당시의 카프 작가들이 현실 속에 깊이 들어 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열매들이다. 때문에 당시의 작품들에는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 농민들의 소작 쟁의, 청년 학생, 녀성 소년들의

반일 투쟁이 반영되였으며 그들의 투쟁 의식과 미래에 대한 리념이 곧 작품들의 중심 사상으로 되였었다.

간고하고 영웅적인 항일 무장 투쟁 속에서 창작된 수 없이 많은 혁명 가요와 혁명 연극은 바로 이 장엄한 영웅 서사시적 현실 속에서 맺어진 고귀한 열매인 것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품—이것은 한말로 말해서 력사적 현실의 반영이며 리념이다. 이러한 작품의 토대는 곧 당시 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아니면 그러한 작품들은 창작될 수 없다. 이러한 작품을 창작하려면 작가들은 항상 당시 현실 속에 깊이 들어 가서 싸우는 인민 대중들과 같이 생활하며 투쟁하며 배우며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 듣기 쉽게 써야 한다.

2

해방 뒤 우리의 인민 주권이 확립된 때로부터 우리 나라 작가들은 처음으로 자유스러운 창작을 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지도와 배려 밑에 작가들은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이 오직 자기들의 붓대를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거족적 투쟁의 무기로 삼고서 세계적 수준을 뛰여 넘는 새로운 조선 문학의 창조를 위하여 보람차게 활동하여 왔다.

우리 나라 작가들은 백 사람이 한 사람같이 당 주위에 굳게 뭉쳐 당의 의지 대로 움직이며 당의 사고 방식 대로 모든 사물을 관찰하면서 당의 문학, 인민의 문학을 창조하고들 있다.

한 때 국제적으로 수정주의 바람이 불어 왔을 때에도 우리 나라 작가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바위 같이 우뚝 서서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 들고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무슨 힘인가? 이것은 바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이 항상 옳바른 문예 로선으로 령도하고 배려하여 주는 데서 오는 힘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는 우수한 문학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현실 속에 들어 가서 배우면서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글을 써야 한다고 언제나 가르쳐 왔다. 이미 1946년 5월 24일 김 일성 동지는 북조선 각 도 인민 위원회, 정당, 사회 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 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시였다.

작가들은 《대중 속에 들어 가서…대중이 원하는 글을 쓰며 대중의 요구를 표현하며… 대중에게서 배우며 또한 대중을 배워 주어야 한다…》(선집, 1954년 판, 제 1권, 120~121페지).

이 교시에 립각하여 우리 작가들은 그 해 년말에 각지 공장과 농어촌, 탄광들로 파견되였다. 이것은 우리들 작가들이 당의 문예 로선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첫번으로 현실에 들어 간 것으로 된다. 많은 작가들은 공장에서 로동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서 배웠으며 또 배워 주면서 창작을 했다.

그 때로부터 조국 해방 전쟁이 일어날 당시까지 나는 흥남 지대 로동자들 속에서 생활하고 창작하였다. 이것은 나의 창작 생활에서 실로 큰 의의를 가졌었다. 현실은 나의 낡은 머리를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변화시킨 공산주의 학교였었다. 그리하여 비록 미약하나마 《자매》, 《나란이 선 두집》 등의 작품을 창작해 낼 수 있게 되였다.

당과 수령은 그 때부터 이제까지 계속 우리들 작가들에게 현실 속에 들어가며 들어 가서 곁으로 돌지 말고 구경'군이 되지 말며 대중과 같이 로동도 하면서 창작하라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당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들고 작가들은 그냥 현실에 들어 가서 로동자, 농민 옆에서 같이 지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마치와 낫을 들고 단기간 혹은 장기간 로동에 참가하면서 자신을 단련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당의 문예 로선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현명하며 정당한 조치였던 것이다.

작가들이 비록 일시적이나마 로동에 직접 참가한다는 것은 부르죠아 작가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 할 일이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의문을 자아낼 수 있다. 《로동에 참가하면 육체의 피로를 느끼게 되여 사색하는 힘이 쇠퇴되거나 마비되기 쉽다. 그리고 로동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쉬운가?》고.

이것은 로동에 참가하는 것을 다만 체험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피상적인 견해이다. 체험은 다만 직접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해 봐야 얻는 것은 아니다. 잘 보고 그 본질을 파악만 해도 체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작가들이 로동에 참가하는 것은 이런 것을 얻기 위한 얕고 적은 목적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동을 통해서 로동 계급의 사상과 감정을 체득하는데 있다. 이것을 체득함으로써 공산주의자의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확립되고 따라서 거기서 얻은 경험이(로동을 사랑하는 천리마 기수들의 생활과 감정) 작품 내용의 생활력을 풍부하게 해줌으로써 그의 예술적 향기가 더욱 높아진다.

작가들의 취재 사업이란 것도 한말로 말해서 《사람과의 사업》이다. 공장에 나가서 취재한다고 하여 기계의 이름이나, 어떻게 생산되나 하는 생산 공정에만 눈을 돌리면 안 된다. 문제는 그 기계를 다루는 인간들의 참된 모습과 성격과 그 호상 관계가 쩨마를 결정하게 되고 슈제트를 이루게 된다.

우리 작가들이 이같이 인간 속에 깊이 침투하였기 때문에 많은 예술의 꽃을 피워 놓았다.

《첫 수확》, 《청천강》은 리 근영이 오래 동안 협동 마을에서 농민들과 같이 호미를 쥐고 생활한 산물이며 《시련 속에서》, 《전환》들도 윤 세중과 리 상현이 황해 제철소 용광로'가에서, 본궁 화학 공장 카바이드로 앞에서 로동자들과 같이 웃고 같이 숨을 쉬였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민 병균의 《어지돈 시초》, 리 병철의 단시들도 모두 그러하다.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희곡들인 《조국 산천에 안개 개인다》와 《해바라기》도 작가들이 항일 무장 투쟁 전적지를 답사하여 당시의 체온을 몸소 느낌으로써 이루어진 열매이며 《붉은 선동원》, 《우리는 행복해요》도 작가들이 리 신자, 길 확실 그리고 많은 동무들과 같이 현지에서 오래 동안 생활한 결과이다.

당과 수령은 이같은 초보적인 성과를(그러나 기본적인 성과이다) 찬양하면서 계속 우리들 작가들에게 현실 속에 더 깊이 들어 가라고 끊임 없이 고무 격려하고 있다.

승리자의 대회 우리 당 제 4차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보고 가운데서 작가, 예술인들이 실천할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현실에 침투할 것을 다시금 강조하시

였다:

《오늘 우리의 생활은 새 사회를 더 빨리 건설하려는 근로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락천적인 정열로 들끓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집단주의적 도덕이 구현된 무수한 미담들로 차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이 보람찬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여 우수한 문예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대중을 혁명 위업에로 고무하는 데 적극 기여하여야 하겠다》.

우리 나라 작가, 예술인들은 이 숭고한 과업을 영예롭게 실천하기 위하여 현실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혁명의 한 부분으로서의 창작 사업을 더 활기 있게 진행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과 함께 고삐를 재우치면서…

3

지금 작가들은 현실 속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직장을 가진 작가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내여서 현실 속에 자주 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들어 가서 쓴 작품들도 때로는 마치 현실을 떠나서 쓴 작품같이 매우 추상적이며 사실의 라렬에 그치여 읽는 사람들에게 실감과 감동을 줄 대신에 싫증이 나서 하품이 나오게 한다. 더 심한 경우에는 외곡된 현실이 작품에 반영되여 독자들의 분개를 자아내게 한다. 이것은 비록 부분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참지 못할 사실이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가? 나는 이 원인을 밝힘에 있어서 신문 기사나 라지오의 뉴스를 듣고 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날림식으로 써 내놓은 작품은 문제로 삼지 않고 다만 현실에 들어 가서 생활을 하고 취재를 했는데도 추상적인 기록주의 작품을 써 놓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현실 속에 들어 가 있으면서도 현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현실에 들어갔다는 것이 깊이 침투되지 못하고 얕은 겉 테두리에서 빙빙 돌았으며 깊이 침투했다 하더라도 알맹이를 볼 대신에 표면에 뜬 거품만 보았으며 한 쪽을 보면서도 전체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사람을 볼 대신에 기계와 생산품에 황홀했기 때문이다.

실제 경우를 들어서 몇 가지 부족점을 이야기한다면 첫째로는 작가들이 현실의 앞장에 서서 기민하게 전형을 붙잡지 못하고 어데 가서 무엇을 보아야 전형을 잡을가? 하고 망서리고 있다가 무슨 소문이 퍼지면 그제야 그 곳으로 몰려 가는 현상들이 있다(부분적이기는 하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호소자인 진 응원의 이야기가 신문에 난 뒤 희곡 작가, 가극 대본 작가, 씨나리오 작가, 작곡가, 화가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서 포위 공격하는 바람에 도리여 천리마 기수들의 작업에 지장을 주었고 그러면서도 진 응원 2중 천리마 작업반원들의 애국적인 투쟁의 산 모습은 작품들에 진실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리 신자 하면 리현리로 몰리고 문 정숙 하면 청산리로 몰린다. 때때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생기군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작가들이 일상적으로 현실 속에 들어 가 있지 않다는 것과 현실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창조 집단 일'군들이 어떤 전형이 출현하면 급작스레 계획을 세우고 어느 작가에게 《아무데 누구를 한 달 안에 형상화해 주시오—현지 취재 기간이 10일, 구상이 5일, 집필 기간 15일—과업입니다. 꼭 실행해 주시오》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럴 때 작가도 《할 수 있소, 해 봅시다》라고 대답하고는 현실에 나가서 본인과 담화하고 현장이나 며칠 돌아 보고 에피소드깨나 주어 모아 가지고 돌아 온다.

그리하여 머리 속에서 익힐 사이도 없이 급작스럽게 맞추어 놓으려니 작품이 잘 될 리도 없지만 그 현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도 없다. 하물며 작품이란 현실의 사실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에 토대하여 현실이 내포하고 있는 미래의 싹까지도 똑똑히 밝히면서 현실보다도 더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형상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보다 큰 결함은 작가들이 현실 속에 들어 가서 오래 동안 있으면서도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데로부터 일부 경우에 작품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밑에서 조그마한 부정도 확대하여 놓으며 심지어는 긍정이 없는 부정 일색의 부정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현실을 외곡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그래서 한때 제대 군인, 젊은 로동자는 긍정의 표본으로 되고 지배인이나 나이 많은 기사는 의례히 부정 인물로 설정하는 도식까지 범하였다.

또 어떤 작가들은 한 공장이나 농촌에서 오래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암만 찾아 봐도 작품될 건더기가 없다》고 한탄을 하기도 한다. 이런 작가는 작품될 《건더기》란 그 어떤 기발한 사건이나 기괴한 인물만이라고 생각하는 낡은 문예 사상 잔재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 환경 속에서 전형을 찾아야 한다》는 맑스-레닌주의의 미학적 명제를 명제 대로 외우고 있기만 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전형적 환경 속에 들어 가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숫한 전형적인 것과 같이 지내면서도 그것을 알아 보지들 못 한다.

이것은 작가들이 당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은 데서와 맑스-레닌주의 미학을 실속 있게 학습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현실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지 못한 채 현실 속으로 들어 갔기 때문이다.

* *

《훌륭한 문학 예술 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부합되는 높은 사상 예술성에 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작품들은 현대의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 방법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의하여서만 창조될 수 있다》(제 4차 당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총결 보고).

우리들 작가, 예술인들은 이 교시를 높이 받들고 혁명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의 문학 창작 활동을 더 철저하게 더 줄기차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 작가들은 항상 현실에 깊이 들어 가서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옳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현실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는 투사가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이 즐겨 읽을 수 있고 생활의 산 교과서로 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더 많이 써 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송 정 우

지난 기간 당의 옳바른 교육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인민 교육은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많은 대학들이 신설 확장되였다.

그러나 전면적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과업은 계속 고등 교육을 받은 많은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당은 이를 타산하여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을 확장하는 동시에 새 형태의 기술 대학—공장 대학을 비롯해서 일하면서 배우는 각종 교육망을 대대적으로 신설 확장하였다.

대학의 이와 같은 장성은 보다 훌륭하고 더 많은 교과서를 요구하게 되였다. 지난 기간 당의 특별한 배려에 의하여 교과서 편찬 사업은 수'적으로 장성하는 이와 같은 요구를 기본적으로 원만히 충족시켰다. 1961년도 한 해 동안만 하여도 그 전 해에 비하여 종수에 있어서 3.8배, 부수에 있어서 11배나 되는 교과서를 편찬 출판하였다.

교과서 내용에서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해방 직후 우리 자체의 교과서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실정에서 적지 않은 경우에 외국의 것을 기계적으로 리용하던 현상은 근본적으로 극복되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자체의 우수한 교과서를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교육 사업에서 우리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달성한 성과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더우기 우리의 교과서들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적인 결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일부 교과서들은 아직도 우리 당 정책과 우리의 현실에 철저히 립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 리론 수준이 높지 못하다.

이리하여 우리 앞에는 과학 리론 수준이 높고 주체성이 철저히 보장된 교과서를 편찬 출판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 부문에서 계속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하며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 *

교과서의 내용과 그 과학 리론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훌륭한 민족 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선진 리론과 과학 기술을 습득하며 우리의 성과를 배운다. 따라서 교과서는 학생들을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우리 나라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론과 방법을 습득시키는 기본 수단으로 된다.

때문에 우리 당은 교과서 편찬 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 왔으며 이 부문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당적 립장에 서서 주체성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과서를 출판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교과서에서 주체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높은 과학 리론과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현실을 똑똑히 배워 줌으로써 조선 혁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서술되는 모든 내용에는 항상 우리 당 정책이 정확하게 반영되여야 하며 그것을 통하여 학생들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실천적으로 준비된 쓸모 있는 일'군으로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 당은 첫날부터 이것을 강조하여

왔다. 우리의 교과서는 일반적 명제를 암송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 현실에서는 제기조차 되지 않는 빈 리론을 되풀이하기 위한 것으로 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데까지나 우리 혁명을 더 잘 하기 위한 지식과 리론을 주며 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리하고 애쓰도록 하는 교과서로 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반적 법칙을 설명하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 당이 지난 기간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하고 창조적으로 해결한 산 사실에 립각하여 해명되여야 하며 당이 앞으로 계속 해결하자고 하는 문제에 옳은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리론은 혁명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며 현실을 떠난 공담으로 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기간 일부 교과서 편찬자들은 이러한 견지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당 정책에 배치되며 우리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릇된 내용을 서술하는 현상이 있었다.

례컨대 《무역 경제학》 교과서 원고에서는 국제 분업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자립적 민족 경제 토대 구축에 대한 문제에 대치시킨 반맑스주의적 견해가 표현되여 있었다. 이것은 맑스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당 정책의 본질을 해명하는 것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우리 당은 맑스주의의 일반적 진리가 항상 구체적 조건에서 창조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가르쳐 왔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 토대 구축의 방침은 우리 당이 맑스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측면의 하나이다. 바로 이 방침에 의하여 우리는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고 그것으로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강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이러한 당 정책에 확고히 의거하여 일반적 원칙을 서술할 때만이 정확하고 유익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혁명에 리익을 주지 못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잔재를 우리는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

우리의 교과서는 그것을 통하여 조선의 혁명가, 조선의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정책은 어떻게 되였고 우리의 혁명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무관심한 객관주의적 서술 태도를 우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그러한 태도로써는 교과서에서의 당성 원칙을 고수할 수 없으며 부르죠아 사상의 침습을 방지할 수 없다. 동시에 그러한 태도에서 서술된 교과서를 통해서는 투사가 아니라 연약하고 쓸모 없는 인간밖에 길러 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교과서 서술에서 당 정책에 의거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당 결정의 조항을 객관주의적 립장에서 라렬 소개하는 것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동시에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을 주관주의적으로 외곡하고 모호하게 하는 것과도 인연이 없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건설의 매 고리에서 우리 당이 제기하고 창조적으로 해결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령도의 현명성을 똑똑히 밝혀 줌으로써 당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깊이 인식케 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는 주인된 립장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과서 집필자들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것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먼저 당의 립장에 철저히 서서 사고하며 현실을 깊이 연구 분석하여야 한다.

집필자들의 옳은 립장과 능력이 겸비된 조건에서만 훌륭하고 주체가 선 교과서를 만들 수있다.

교과서에서의 주체성 문제는 우선 집필자들의 사상적 립장과 관련되여 있지만 능력이 부족할 때는 도식을 낳게 된다. 교과서 서술에서의 도식은 결국 당 정책을 외곡하는 데로 나아간다.

바로 이러한 실례를 우리는 《론리학 개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필자는 형

식 론리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 당 정책을 그 도식에 맞춰 넣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적지 않게 외곡된 실례들을 함부로 인용하고 있다.

필자의 의도가 선량하였다 할지라도 서술된 내용이 외곡되였을 때는 마찬가지로 유해로운 작용을 하게 된다.

우리는 교과서 서술에서의 자유 분방한 사고 활동을 장려하면서 그것이 언제나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될 것을 주장한다. 동시에 우리의 교과서에서는 본질적인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하나의 실례까지도 그것이 다 같이 학생들로 하여금 당 정책을 옳게 파악하게 하는 데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과서 서술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외국의 것을 기계적으로 옮겨 놓는 교조주의적 현상을 철저히 근절하고 그 내용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복종시키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혁명이 바로 주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써 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례를 들어 농업대학에서는 조선 땅에 적합한 농업을 배워야 한다. 만일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조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술을 배운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1956년 1월 9일 새로 선거된 민청 중앙 위원회 위원들과의 접견 석상에서 하신 담화)라고 교시하셨다.

당의 옳바른 지도 밑에 지난 기간 우리는 이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례컨대 《가축 사양학》 교과서 집필자는 직접 현지에 내려 가서 우리 나라 산야에 풍부한 자연 사료의 성분과 그의 영양 가치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 가축들을 사양함에 필요한 사료 단위 기준을 설정하여 교과서에 반영하였다. 이밖에 《수산물 가공 공학》, 《전기 화학 공학》, 《분석 화학》, 《전기 기계》 교과서를 비롯한 많은 교과서 집필자들이 현실을 깊이 연구한 결과에 주체가 선 훌륭한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에서 교조주의적 현상은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 계획》교과서 원고에서는 농촌주택을 다층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주민 1인당 20~30평방메터를 예견하는 농촌 공원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내용을 서술하고있다.

《축산학 각론》 교과서에서는 국영 농목장과 농업 협동 조합에서 말을 빨리 증가시키되 새끼 밴 암말에게는 홍당무우와 사탕무우를 많이 먹여야 한다고 외국의 것을 기계적으로 옮겨 놓고있다. 이것은 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우리의 현실과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결함이다.

이러한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자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실천에서 이룩된 성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일반화하여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조주의적 현상을 극복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와 함께 보다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절실히 필요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의 자연 부원, 원료 원천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국내 자원에 립각하여 우리의 인민 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주는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 서술에서 일반적 공식만 되풀이 하거나 가까운 것은 보지 않고 우리와는 인연이 먼 외국의 것만 바라보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우리의 교과서에서는 우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더 잘 보여 주어야 하며 우리 나라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가령 려청탄이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야금용 연료를 우리 나라에 풍부한 무연탄으로 대신하는 문제가 나서고 있다. 우리의 교과서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생각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와는 인연이 먼 것을 장황하게 서술했대야 그것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수도 없다. 그것은 도리여 학생들의 창발성과 사고력을 무디게 하며 제 것을 적극 찾아 내여 리용하려는 자력 갱생의 정신을 희박하게 할 따름이다.

우리의 교과서는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조선의 산과 들에 있는 약초를 캘 줄 알게 하며 동해와 서해에 있는 물'고기 자원을 알게 하며 그것을 더 많이 찾아 내여 우리의 인민 생활을 풍요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데에 복무하지 못하는 교과서는 우리에게 소용되지 않는다. 교과서 서술에서 주체 확립의 중요한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에는 우리 나라 과학계에서 달성한 중요한 과학 기술적 성과들을 정당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옳게 접수하고 리론 실천 분야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지금까지의 교과서들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옳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교과서들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우수한 설비들을 소개할 대신에 락후한 생산 공정과 기계설비 및 작업 방법 등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례컨대 《수산물 가공 기업소의 설비》 교과서에서는 통조림 가공 설비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계화, 자동화 대신에 락후한 수동식 방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축산 기계화》 교과서에서는 재래의 락후한 급수 및 운반 장치만을 언급하고 자동 급수 및 자동 운반 장치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 좋고 더 많은 인재를 더 빨리 양성할 데 대한 문제가 긴절하게 제기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현상과는 결코 융화할 수 없다.

문제는 우리의 교과서에 우리 나라에서 달성된 과학 기술의 최신 성과들을 옳게 반영하고 서술 내용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그것을 토대로 어디에서나 기술을 자유로이 다룰 수 있게 되여야 한다.

교과서의 과학 리론 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교과서에 외국의 선진 경험을 옳게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는 일정한 편향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교과서 서술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할 데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외국의 선진 경험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는 현상까지 발로시키고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문제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우리의 혁명을 잘 하기 위해서 옳게 리용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일찌기 유명한 실학파 학자인 박 연암은 《그것이 인민에게 리롭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법이 비록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이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바 있다.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당은 항상 이렇게 가르쳐 왔다.

교과서 서술에서도 주체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면서 외국의 선진 경험과 기술을,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발전 전망과 관련되고 좋은 것이라면 소개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기계화, 자동화, 화학화를 촉진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교과서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각종 기계 설비들과 생산 공정들을 합리적으로 도입 리용할 방도들을 연구하여 소개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외국 학자들의 새로운 연구 성과와 기술적 자료들을 광범히 번역하여 참고서로서 출판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시야를 더욱 넓히고 그들의 창조력을 적극 발양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과학 리론 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기초 과학 부문 교과서들의 과학 리론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 특별한 고려를 돌려야 한다. 이 부문 교과서들은 아직 현대 과학과 기술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 과목들과의 밀접한 련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 기술 습득에 리론적 안받침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 과학의 발전이 없이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할 수 없으며 우리 나라 기술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편찬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당성을 고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과학 기술적 성과들을 평가하고 소개하는 데서 나타난 편향들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기 우리는 선조들의 유산 연구에서 얻은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과학 기술의 발전과 문학 예술의 발전을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서 평가하고 서술한 수다한 교과서들과 참고 문헌들을 출판하였다. 특히 《조선 음악사》, 《조선 연극사》, 《조선 문학사》, 《조선 미술사》, 《조선 기술 발전사》, 《조선 자연 과학사 자료집》들을 편찬한 것은 큰 성과로 된다.

그런데 교과서들에 우리의 유산을 소개함에 있어서 아직도 허무주의적 태도들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례컨대 일부 교과서 원고에서는 3국 시대의 찬란한 회화나 조형 예술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것이 종교의 외피를 쓰고 있다 하여 과소 평가하려 하며 리률곡의 사상에서 그의 선진적인 요소까지도 보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발로되였다.

이와 반대로 일부 교과서들에서는 선조들의 유산을 력사주의적 원칙에서 서술할 대신에 이를 무원칙하게 현대화하는 경향을 발로시켰다.

우리의 유산들을 그것이 창조된 구체적인 력사적 제 조건 밖에서 고립적으로 고찰하면서 현대화하거나 허무주의적으로 대하려는 태도들은 다 주체확립과는 인연이 없는 유해로운 경향이다.

교과서들에서 찬란한 우리 선조들의 유산을 정당하게 소개하고 그 의의를 밝혀 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주의를 배양하는 문제와 관련되여 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의 빛나는 유산을 더 많이 소개하여야 하며 더 잘 알게 하여야 한다.

❋ ❋

현 시기 전체 교과서 집필자들에게는 주체성 있고 과학 리론 수준이 높은 우수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숭고한 의무가 지녀져 있다.

이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필을 직접 담당한 일'군들 자신이 과학리론적으로 철저히 준비되여야 하며 당정책과 우리의 현실을 깊이 연구하여야한다.

동시에 우수한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광범한 사회적 력량을 인입해야 한다. 교과서 집필 및 심사 사업을 대학에만 국한시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현지 기술자들과 과학, 문화, 보건 기관 전문가들을 광범히 망라시켜 그들의 우수한 경험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시기 대학에서 집필한 교과서 원고를 광범한 사회적 심의에 붙임으로써 주체성을 보장하고 과학 리론 수준을 제고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교과서에서 과학 리론의 심도를 보장함과 함께 평이하고 간결하게 서술해야 한다. 지난 시기 일부 교과서들에는 《창문이란 무엇인가》, 《알사탕이란 무엇인가》 등의 불필요한 설명을 늘어 놓으면서 쉬운 말과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힘든 술어를 사용하여 간단한 내용을 복잡하게 만드는 현상이 있었다. 우리의 교과서들에서는 내용상에서뿐만 아니라 그 문체에 있어서도 인민성이 철저히 보장되여야 한다. 더우기 통신 학생들을 비롯해서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모든 교과서들은 교원의 설명이 없이도 읽으면 곧 리해될 수 있게 되여야 한다.

전체 교과서 편찬 관계자들은 우리의 붉은 민족 간부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높은 책임감 밑에 이 모든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문답학습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물을 옳게 보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변증법을 소유하고 변증법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증법은 사물, 현상들을 전반적인 련관 속에서, 운동 변화 발전의 견지에서 고찰한다.

이와는 반대로 형이상학은 사물과 현상들을 고립된 것으로, 고정 불변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물론 현실에 대한 그릇된 태도에서 나오는 비과학적 견해다.

력사적으로 반동적 지배 계급들은 형이상학적 견해를 고집해 왔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지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가 변화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 때문에 지배 계급들은 멸망의 시기에 더욱 완고하게 형이상학을 설교한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형이상학이 특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철학의 력사는 유물론과 관념론과의 투쟁의 력사인 동시에 변증법과 형이상학과의 투쟁의 력사였다. 변증법은 형이상학과의 대립 투쟁 속에서 발전되고 완성되여 왔다.

변증법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독일 철학가 헤겔이였다.

헤겔은 세계의 근본을 물질로 본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보았다. 그는 세계가 변화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그가 말하는 세계란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정신으로 된 세계였으며 《절대 리념》의 자기 운동에 지나지 않았다.

헤겔의 변증법에는 합리적인 것이 담겨져 있었으나 관념론의 기초 우에 선 것이였기 때문에 현실 연구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거꾸로 선 변증법이였다. 그리하여 그의 변증법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었고 불완전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

맑스와 엥겔스는 헤겔의 변증법에서 관념론적 찌꺼기를 없애 버리고 기본적 알맹이만을 취하여 현대의 과학적인 유물 변증법을 창시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바로 자연과 사회 자체에서 변증법의 법칙을 발견하고 인간 의식에의 그의 반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였다.

맑스주의 변증법의 첫째 기본 법칙은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의 이행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사물과 현상들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를 보여 준다.

모든 사물은 량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가지고 있으며 량적 변화는 질적 변

화를 가져 오고 사물의 점차적 진화는 필연코 혁명적 비약을 일으킨다.

그와 반면에 질적 변화는 다시 량적 변화를 촉진시킨다. 즉 질적 변화가 일어 나기 위해서는 먼저 량적 축적 과정이 선행되여야 하지만 이 변화는 다시 보다 새로운 량적 발전을 일으키게 한다.

조선 사회 발전에서 일대 비약인 사회주의 제도의 확립이 가능하기까지에는 이를 위한 끊임 없는 투쟁과 일정한 량적인 준비가 필요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일단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후 그것은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 인민 생활의 급격한 향상과 사회주의 문화의 개화 등 사회적 변화에서의 새로운 량적인 발전을 더욱 가속도적으로 촉진시켰다.

유물 변증법의 둘째 기본 법칙은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사물이 변화 발전하는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힌다.

모든 사물이 변화하며 발전하는 원인은 그 사물 자체 내에 모순이 있고 투쟁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회 력사 발전의 근본 원인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의 모순, 토대와 상부 구조 간의 모순에 있다. 계급 사회에서 이러한 모순은 계급 투쟁으로 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 투쟁은 계급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된다.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모순은 미제와 조선 인민 간의 모순이다. 이 모순은 미제를 반대하는 전체 인민의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제의 일거 일동에 대하여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흉계를 매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여야 한다.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은 맑스주의 변증법에서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의 핵심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변증법은 간단히 대립물의 통일에 관한 학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것으로써 변증법의 핵심이 파악될 것이다》(레닌 전집, 제 38권, 297페지).

세째는 부정의 부정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사물 발전의 일반적 경향성과 발전 방향을 보여 준다.

발전은 새 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새 것이 승리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새 것은 빈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정한 바탕과 원천을 가지고 나타나며 낡은 것을 부정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긍정적인 것을 보존하고 계승하면서 발전한다.

우수한 민족 문화 유산에 기초한 우리 나라 과학 문학 예술의 개화 발전은 이 법칙이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얼마나 거대한 역할을 노는가를 뚜렷이 보여 준다.

이 법칙은 또한 모든 사물이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부단히 상승하는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력사는 지금까지 낮은 사회로부터 보다 높은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이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이보다 더 높은 사회 경제 구조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력사적 시기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변화 발전은 아무런 굴곡도 없이 직선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력사 발전은 때로는 장애에 부딪쳐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장애물도 사물의 전진 운동, 부단한 상승적 발전 경향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례컨대 4월 봉기 후 급속히 앙양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은 미제의 파쑈적 폭압에 의하여 커다란 장애를 받고 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대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미제가 제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쫓겨 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조국 통일은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변증법은 인간이 주관적으로 만들어 낸 그 어떤 묘책인 것이 아니라 객관 세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것이며 바로 이로 인하여 변증법은 객관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는 과학으로 된다.

변증법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 사유 발전의 가장 일반적인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세계의 운동 방식을 객관적 변증법이라고 하며 그것을 반영하는 인간의 사유, 인식 활동 방식을 주관적 변증법이라고 한다.

엥겔스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소위 **객관적** 변증법은 전 자연을 지배하고 있으며 소위 주관적 변증법, 변증법적 사유는 전 자연에서 지배하고 있는 대립에 의한 운동의 반영일 따름이다》(《자연 변증법》,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206페지).

객관 세계 자체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그것을 인식하는 행정 자체도, 그리고 론리적 사유 과정도 변증법적이여야 한다. 변증법이 객관 세계의 과학적 인식 방법으로, 그것을 변혁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변증법이 객관적 변증법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변증법은 인간이 머리 속에서 인공적으로 고안해 낼 수 없다. 인간의 정신, 의식은 객관적 물질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사유, 인식 활동에서도 변증법이 그대로 작용한다. 유물 변증법이 세계의 발전 법칙으로 되며 동시에 인간 사유의 법칙으로 되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철학 력사에서 최초로 변증법을 론리학, 인식론에 관통케 함으로써 변증법, 론리학, 인식론의 호상 분리를 처음으로 극복하였고 그것들을 서로 통일시켰다.

때문에 레닌은 변증법은 동시에 론리학이며 인식론이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말이 필요 없으며 그것은 모두 동일한 것이라고까지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유물 변증법을 창조적으로 적용 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을 항상 정확하게 지도하여 왔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찌기 1930년대에 맑스주의 변증법에 기초하여 현실을 심오히 분석하고 정확한 혁명 로선과 전략 전술을 작성하였으며 민족 해방 투쟁을 승리에서 승리로 령도하였다.

해방 후 우리 당은 유물 변증법에 기초하여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우리 혁명의 승리를 성과적으로 령도하여 왔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로선이 항상 정확하였고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것이 현실 생활에서 위대한 물질적 힘으로 전변되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물 변증법을 소유하고 그 법칙으로 자신을 무장하게 되면 당의 로선과 정책, 그 본질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사태에 대한 정당한 분석과 판단을 내리고 활동할 수 있으며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다.

고 동협

물자 소비 기준에 대하여

우리의 일상 생활과 사업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기계가 하루에 몇 시간씩은 돌아 가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며 7급공인 방직 로동자가 하루에 700메터의 아마직을 짜야 한다는 것도 한개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이 없이는 생산과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할 수 없으며 또한 통제할 수 없다. 만일 기대별로 하루 몇 시간 이상은 돌아 가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면 한 달 또는 1년 간에 어느 정도로 생산을 높이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없으며 설비 리용률을 높이도록 강한 통제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에 따르는 작업 정량이 없다면 생산을 계획화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 기준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소비 기준이란 무엇인가?

소비 기준이란 어떤 생산물을 내는데 또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되는 물자를 써야 하는가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다.

즉 전동기 한 대를 만드는 데 얼마만한 선철과 규소 강판을 들여야 하는가, 또는 건설 대상에 따라 건물 매 평방메터당 강재, 세멘트, 목재 등을 얼마나 소비해야 하는가 등등을 규정하여 놓은 것이다.

따라서 물자 소비 기준은 물자 소비에서 이미 달성된 실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예견된 수준, 즉 계획 과제를 말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특히 절약하여 증산하자는 당의 구호를 관철시킴에 있어서 소비 기준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정확한 물자 소비 기준이 없이는 인민 경제 계획을 작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재와 자금을 절약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고 그의 관철에로 근로 대중을 불러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물자 소비 기준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로 된다.

례컨대 평양 전기 공장에서 한 대의 전기 모터를 생산하는 데 얼마나 되는 철과 규소 강판 그리고 동선과 전력을 소비하는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만 이 공장에서 한 달 동안에 몇 대의 모터를 생산하니까 총 얼마나 되는 철과 규소 강판, 동선, 전력 등등이 요구되는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 공장 물자 공급 일'군들이 물자 공급 계획을 정확히 세울 수 있으며 또한 그와 련관된 기업소들에서 이 공장에 철, 규소 강판, 동선, 전력 등등을 보내기 위하여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가를 타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 기준은 자재 공급 계획, 운수 계획, 생산 계획, 판매 계획의 수립에서 중요한 기초로 된다.

또한 물자 소비 기준은 절약을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하며 절약 투쟁에로 대중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된다.

오늘 당은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재, 원료, 자금의 소비를 체계적으로 낮출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확한 소비 기준이 없이는 자재, 원료, 자금을 극력 절약할 데 대한 근로자들의 의욕과 책임성을 높일 수 없다.

물자 소비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물자 소비 기준은 기술 장비 수준, 설비 리용률, 로동 조건, 로동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 등 모든 기술적 조건들과 선진적인 로동자, 기술자들이 절약 투쟁에서 달성한 우수한 성과들을 타산하여 제정된다.

례컨대 평양 정밀 기계 공장에서는 재봉기의 단위당 선철, 환강, 박판, 주관, 철선 등 자재의 소비 기준을 제정할 때 우선 설계 도면에 예견된 완성 중량, 재질 및 기타 기술 조건과 공정표에 규정된 가공 조건, 소재 규격, 소재 단위당 제품 가공 개수, 일'군들의 기능 급수 등을 타산한다. 다음에 계획 시기의 기술 발전 수준, 설비 리용률 제고 정형, 지난 시기 선진 로동자들이 달성한 경험 등을 일일이 타산한 기초 우에서 기술부 원 단위조에서 제품당 소재 소비 기준을 제정하고 집체적 협의를 거쳐 기사장이 비준한다.

이와 같이 제반 조건을 타산하여 소비 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물자의 절약을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탐구되고 막대한 예비가 동원될 수 있다.

또한 물자 소비 기준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소비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로동자들은 아예 그것을 실현해 보겠다는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에 근거하여 자재가 공급된다면 자재 부족 때문에 생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도 없을 것이다.

반대로 소비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도 물자 절약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 의욕을 상실하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편향은 다 같이 생산 공정에 선진 기계 기술을 도입하여 물자 소비를 극력 축소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며 자재의 절약 투쟁을 마비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료, 자재의 소비 기준은 반드시 선진적 기준에 기초하여 노력만 한다면 다 실현될 수 있게 설정하여야 한다.

물자 소비 기준을 제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의 하나는 기술적으로 근거를 가진 계산 분석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 통계적 방법이다.

경험 통계적 방법은 개별 일'군들의 주관적 경험과 지난 기간의 실적, 통계 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소비 기준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이로부터 이 방법은 새로 도입되는 기술이 지어 주는 물자 절약의 가능성을 옳게 타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적지 않은 경우에 더 절약할 수 있는 자재를 절약할 수 없게 한다.

경험 통계적 방법과는 반대로 계산 분석적 방법은 공장, 기업소의 현존 생산 조직과 생산 경험, 기술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 우에서 기술 문건에 립각하여 소비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례컨대 방직 공장에서는 직기 리용률

의 제고 정도, 실의 질과 정미 중량, 천 짜는 과정에 생기는 파사의 감소 등등을 고려하여 실지 계량의 방법으로 천 메터당 실의 소비 기준을 제정한다.

그러므로 소비 기준은 계산 분석적 방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적지 않은 자재들 특히 보수용 자재와 보조 자재들은 아직 계산 분석적 방법으로 기준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보수용 자재나 보조 자재의 수는 대단히 많다. 이것들을 정확히 기준화하지 않는다면 그의 합리적 리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 자재이건, 보조 자재건 할 것없이 모든 자재에 대하여 계산 분석적 방법에 의한 소비 기준을 제정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자 소비 기준을 잘 세운 다음에는 그것을 낮추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자 소비 기준을 부단히 낮추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선진 기술을 부단히 도입하며 대중의 창의 고안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소비 기준을 저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도로 된다.

평양 정밀 기계 공장에서는 창의 고안과 선진 기술을 많이 도입함으로써 금년 1.4분기 간에 재봉기 대당 선철의 소비를 기준에 비하여 근 0.9로, 환강은 0.75로 각각 낮출 수 있었다. 특히 이 공장 로동자들은 종래 새 강재를 써서 단조 공정을 거쳐 생산하던 실체기 련결대를 쇠'밥을 모아서 다시 녹여 정밀 주조법으로 생산함으로써 많은 철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물자 소비 기준을 낮추자면 설계에서부터 생산의 마지막 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서 절약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설계 작성에서 철재를 비롯한 각종 자재에 대한 강도상, 중량상 불필요한 여분을 보는 현상이나 또는 기업소들에서 오작품, 불합격품이 나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소비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다 같이 물자 절약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우리는 계속 설계를 개선하며 수입 자재를 국내산 자재로, 대용 자재로 전환시키고 폐설물을 광범히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고 설정된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 등 제도와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며 검사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불합격품과 오작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청산해야 할 것이다.

김 성룡

근로자 제 9 호 (루계 202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2년 6월 20일　　인 쇄 • 1962년 6월 17일

ㄱ— 230340　　값 40전

서 적 안 내

《조선 로동당의 지도 밑에 개화 발달한 우리 민족어》

국판 264페지 부수 3,000부

이 책은 조선어를 개화 발달시키기 위한 우리 당 언어 문화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이 책에는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에 구현된 인민적 문풍의 모범이 분석 해명되고 있으며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국어를 고수하고 그를 개화 발달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이 리론적으로 서술되여 있다.

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의 모국어가 걸어온 빛나는 로정을 개괄한 이 책은 현 시기 조선어의 사회적 기능을 더한층 높이고 인민적 문풍을 확립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4편으로 서술되여 있다.

제 1편 조선어의 개화 발달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제 2편 항일 무장 투쟁 시기 모국어의 고수와 인민적 문풍의 수립,

제 3편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의 언어적 특성,

제 4편 해방 후 조선어의 개화 발달.

이 책은 과학원 출판사에서 발행한다